東亞日報

本紙六面

發行所 東亞日報社 京城府和洞 發行兼編輯人 金鐵中 印刷人 趙宣淳

進步를阻害하는責任者

一

社會의進化는恒常社會自體에서發芽하고 成長하는技術과理想에다시追從하는것이니 理想이먼저있서가지고 새로운進化를要求하는것이아니라 社會의內部에서이러나는 生産的技術이나 政治的權力에 올니여서進步하는것이다 萬一그러하지아니하고 社會的內部에있는生産的技術이나 産業程度에合當하지아니한性質의 政治的權力으로써 社會의內部에있는産業을이르키고 産業을助長하는데는範圍하고 오즉治者의貪慾에만偏側되야 不當한權力으로 被治者勞力의結果를搾取하는時에는 그政治的權力이라고하는것도 畢竟에는崩壞를 免하지못할뿐아니라 그政治圈內에있는民族全體도 或은退步하며 或은衰亡하야滅亡하는運命을招致하나니 治者가被治者에게 臨하는手段과識見이라고하는것도 恒常被治者의産業狀態와 程度에는그生産技術의程度를 制約할必要가있는것은 勿論이어니와 被治者도治者의橫暴와 强壓에感情으로만 反對할것이아니라 被治者自身의生産上技能과 企業的現實을自省하며 自强할必要도있는것이다

二

그러하야 被治者가治者에게서解放을得하고 그自己네의利害에合當한團體的生活을 營爲하는地位에到達함에는必要한것을準備하여야할것이다 다시말하면 無理한治者에게서벗는要道를버서바리고自己네의利害에合致하는政治生活과經濟生活을實現하랴니라 그無理한治者가存在하는治者의無理에만 慣激할것이아니고할것가트면그現實에立脚하야條件을 明確하게認識하고 그네들이 무엇과무엇으로因하야治者로의强力을構成하고잇스며如何한方法으로 그支配力을維持하는가를 가장明確하게看取하는同時에 그러한治者의無理한支配力을排除식힘에는 被治者의手段이무엇무엇이며 그手段을助長하고 그手段을發揮식힘에는그現實에서 그에相應한方策이必要하다는데 被治者一般의覺醒이업서서는아니될것이다

三

다못單純한생각으로 無理한治者의支配力을排除함에는 被治者의힘이治者의힘보다優勝하여야할것이오 被治者의힘이治者의힘보다優勝함에는 被治者의團結이必要하다하야 오즉團結團結하고 입으로提唱만하는것이아니라 그團結을妨害하는治者가있는以上 그團結을 어뎌케하여야할것인가 이것이큰問題일뿐아니라 그團結그것이必要如何를云謂하는것보다도治者가權力으로團結을妨害하는現實에서엇뎌케하면團結이될수가잇고 엇뎌케하면團結이아니될다는問題를構成하는方法그것이 그社會의運命을決定하나니 團結의價値如何가運命을決定하는것이아니라 團結의方法

四

如何가그運命을決定하는것이다 어느곳어느社會를勿論하고 團結의方途가업는者는하나도 업다 그럼으로無理한治者의 屋下에跋扈를當하는사람들의 運命에適行하면서 無理하게自己네의團結方策의有無와 그方策의貪慾에만沈沒되야 團結力策의有無와 그方策의如何가 그네의運命을決定하는것이라고 力說하는사람들에게 勞力과 强力을濫用하는者들의 退滅과敗北는 그方途를 選擇하고 그方法을發見하면 그方法에依하야 團結할수있는 歷史의事實로보면 어느時代와 어느社會를勿論하고 被支配者는 그方法을練習하고 그方法을熟知하는 勇氣와力量으로 團結의方法이 업다고는할수업는것이다 그럼으로團結의方法이 社會의進化를阻害하는責任의所在를 看破하고 그것을排除할만한 强力을 發揮하는것이 現代에있서서 被治者의 責任이라할것이다

數日中에 奉國軍大激戰?

兩軍準備에紛忙中

奉軍南下의先鋒隊는續續活動中인데 直隸方面에서는國民軍亦是南路를扶하야防戰準備에不遠한此數日中에는一大激戰이있스리라더라(北京一日發)

赤化反對大會 中俄大學閉鎖要求

赤化反對大會는六日에北京에서開催하고 中俄大學의閉鎖를要求하얏더라(北京一日發)

蔣孫諒解成立?

孫氏平和主張에吳氏狼狽

孫傳芳氏招電에依하야楊文愷氏가南下하얏는바 孫傳芳氏는楊氏와長時間의會談을한바가잇섯다 그內容은最近孫傳芳氏가南下하기前長子店에서吳佩孚氏와會見한結果이라하며 孫傳芳氏는吳氏에게通電을發하야 北京政府當局은此를否認하얏다더라(北京電)

南口陷落後에 北伐軍討伐

吳氏對孫氏返電

吳佩孚氏는孫傳芳氏에게南口는數日中에陷落될것이오其後에는南下하야共同으로南方赤賊을討伐하리라고返電하얏더라

奉天巡警千餘名 給料引上決定

二割乃至四割로

賠償金問題로中國側大阪氏는關東廳內에在한奉天巡警千餘名의給料引上要求에對하야關東官憲에게招聘되야其結果二割乃至四割을增給하기로하야問題는解決되엿더라

勞農保安部長 次長멘氏昇任

勞農保安部長「쩨르진스키」氏後任으로同部次長멘진스키氏가任命되엿더라(모스코電)

露國官憲에게 日人醫師被逮

以外名目으로日本人醫師勝田四郞氏는露國官憲에게逮捕되엿다더라

國際平和完成은 經濟的原因除去後

一國民이他國民의利益을爲해 犧牲하는現下條約締結도無用

米國代表「헨」氏談

「로쎈하겐」에開催되는第一回自由新聞記者에大會에出席한米國代表「헨」氏는伯林에서歐洲國際平和의運動은戰爭의經濟的原因을除去하기前에는到底히完成되지못하리라고言明하얏더라(나우엔一日發)

伊國首相刺殺 陰謀는事實

西班牙首相「리베라」將軍은「불세로나」에서合同通信에向하야「犯人이十曜에「리베라」將軍을暗殺하라한것은事實로犯人은逮捕되엿다고」

佛國銀行 割引步合引上

佛蘭西銀行은本日其割引步合을六分五厘로引上하고同時에貸付利子를八分으로부터九分에引上하얏다고發表하엿더라(巴里一日發)

포內閣財政案 全部下院을通過

佛下院은政府의財政案全部를百八十四對二百九十五로可決하얏는데 同法案은上院에回附된後政府는財政諸法案의通過를期하기위하야 「포앙카레」氏는財政案全部를 可決하얏스며 此로써直接稅收入增加는...(巴里一日發)

流動國債와 減債基金創設案

三日下院에提出

「포앙카레」內閣은二日閣議에서流動國債와減債基金創設案을議決하엿는데 右는三日下院에提出할豫定이더라(巴里一日發)

共産黨은反對

富裕階級에負擔을輕減하고 貧困階級에더負擔식힌다고

佛國下院은百八十對百四十으로大增稅를 決議하고政府提出의財政案第十一條와 第一條의各種相續稅를增加할案을 可決하얏다는데 共産黨은「포앙카레」氏에게信任投票에對한決議에反對하고 政府의財政案은富裕階級의負擔을輕減하고貧困階級에負擔을增加한다고主張하얏다더라(巴里一日發)

經費節約 命令權附與

昨日下院財政委員會를通過한政府財政案은本日下院本會議에提出되엿다 政府는爲先同案을審議하기前에提出하라는動議를提出하얏는데 一國庫收入에對하야上院과下院의決議 ... 命令으로써經費節約을行할權限을附與하고同時에各種稅其他特殊의諸稅를改正할案을可決하엿더라(巴里一日發)

下院通過한 新財政案骨子

三十日下院은「포」內閣新財政案을討議하엿는데「포앙카레」首相은新財政案의成立이一分遲延될때마다國家는一日에巨大한損失을蒙하겟다하야同案을通過식히고 一大演說을하고同案의骨子는政費節約及諸稅...

波蘭의協約參加는 露國에對한侵略

勞農露國이反對聲明

「바르샤바」諸邦의保障協約을締結할것은露國에反對한다고聲明한理由는同協約參加는露國에對한侵略의一端이되리라하야抗議하엿더라(나우엔一日發)

白頭山觀察(七)

崔南善

十、大白神과上山祭

豊山은지난번에行政區劃大改正時에 다른데서나누어말엔 甲山에屬하얏다가 오지咸鏡南道에新設된 一郡이니 北靑、端川으로부터 그一部식을割讓하야成立된것이로대 面積으로는北靑의 一部에 第一等하고 五部의五六郡에 匹敵하는者도있서 朝鮮에서江界郡에 다음가는 大郡이다 郡廳所在地는里仁面의 海拔一千百餘尺을算하야 郡衙치고는 朝鮮에서首位를차지하는 標高로 「世界」에서도 荒廢된 郡으로이름잇다 ...

化施設도比較的완連하다하겟스나 學齡兒童의就學率이아직시원치못하다함은 經濟事情에도말미암은일이겟지마는 郡民의一般의 覺醒을要할일이다 ...

朝鮮日報의分局을마타보는 朴根厚君은一見에舊友와가타서 여러가지로說明과周旋에힘써주며 其他兩教의首腦와民官여러분의努勞을偏주하야 講演會를꿈인다함이무비나의이번行色을번듯하게하야주는주情인양하야 못내感謝하얏다 歡迎會에서特히感激한것은 여러가지樣子의菓子가 다此土 人의製産이라하는데 品種과 風味가다足히稱道할만한이잇슴이었다 豊山이라는 郡名을지은것은 寒이지난 ...

... 原始信仰중에 祭祀가각각 一休를차려올리는 式이비로소의方法이라하야 ...

吉林省에……

露國領事館設置

中國側은赤化防止策研究

吉林公署는勞農露國吉林領事館設置에關한「카라한」氏의交涉에接하고 北京外交部及奉天督辦公署를 拒絶할卽不能하야承認한바 其後勞農側은路中協定에基하야領事館設置를極力主張하고 中國側은赤化宣傳防止方法에對하야研究中이더라

烏鐵破損

烏蘇里鐵道의客車及機關車는 全部破損된바「니코라이스크」市機關工場에서는 어느程度까지修理를하게되나 不過幾十輛에不過하기때문에最近工場을擴張하야「데카브트」式機關車의修理도可能케하려고이미第一의修理에着手하엿다는데 이미破損되엿슴에不拘하고列車가轉覆치아니하는것은異常한일임으로早晩間大修繕을加할것이다그러나枕木의交換架橋의修繕計劃도업는貌樣이더라

勞農露國은 日本侵略을念慮

福田博士의歸國談

昨年九月莫斯科에開催된勞農露西亞學士會三百年祝賀會에出席하엿든(夫人同伴)東京商大敎授福田德三博士는一日午前九時人港한箱崎丸으로歸國하엿는데 此會는學士會成立二百年祝賀會에臨席하엿다가 此會는前年三月로 五月에는萬國學士會에六月에는國際商業會議所會議에出席한後에 官德川中佐와共히歸國하야記者에게말하되 日本을出發한것은昨年三月로 ...

勞農露西亞는日本侵略을念慮하는貌樣이다 勞農政府는日本이侵略主義를가지고잇지아니한가하야憂慮하고잇다 日本의文化로보아서는그러하지안타고力說하엿다 ...

後藤子의野望

結局不成功?

後藤新平子는新黨樹立에對하야 實業界의有力者와政界의有力者를歷訪하야 援助를要請하엿스나 其後藤子의政本提携運動은大野伴睦氏等의政友本黨의一部와의提携에依하야 實現하려는것인데 政本兩派의中堅은後藤子의提携에反對하고 政本兩派의疏遠한關係로보아 結局不成功으로終할模樣이더라

亞洲民族大會

米國은度外視

長崎에서開會할亞細亞民族大會에對하야米國政府部內에서는會議의目的이 果然那邊에在한지도또不明하며 會議가外見上豫想되는대로中國人印度人及勢力이업는日本人等의過激分子만의會合이아닌가하야 會議가그러케大한意義를有한것은아니라고觀測하더라

滿蒙移民前提로 調査機關設置計劃

滿蒙에對한移民을目的으로調査機關을設置할必要가잇다고 朝野의有力者間에서는田中床次兩總裁도 贊同하고調査에着手하리라는데 ...

梅谷知事後任

白上鳥取知事?

梅谷長野縣知事가依願免官이되는同時에그後任은白上鳥取縣知事와 鹿兒島縣知事中에서內定된바 白上說이有力하더라(東京電)

廣東郵便員 總罷業開始

中國街電信局도閉鎖

郵便局中國人從業員은一日부터總罷業을開始한바 中國街電信局도全部封鎖되엿더라(廣東一日發)

中華全國總工會가 駐中日官憲에嚴重警告

關東長官,廣東總領事에對하야 不法監禁한罷業職工放釋要求

不應이면日貨排斥할려

中華全國總工會는關東長官及廣東總領事에게對하야 本年二月大連福紡績工場의罷業에對하야日本官憲이罷業職工을不法監禁한것은不當하다하야 卽時釋放을要求하고 萬一應치아니하면日貨排斥을 斷行하리라고警告하엿다더라(香港一日發)

亞族大會檢討(一)

RYS生

八月一日부터 日本長崎에서 열리게되는「亞細亞民族大會」에 對하야는 多少의關心을 가지지아니치못하게되는바가 잇서 同大會는漸次國際會議的性質을띄게된다 實로亞細亞各民族의代表와朝鮮各言論界에서 同大會를否認하는 或은參加를拒否하는民族의 聲明이잇섯고 다시二十四個團體의連署로同大會와 絶緣한다고 一般의社會的興論이極히 沸騰하야 種의憤慨와敵意를 가지게한다 ...

이에筆者는 이亞細亞民族大會의出現된根底의理由를알어보며 亞細亞弱小民族의覺醒을促코저한다

歐羅巴資本主義國家에는 오래前부터反猶太人主義(안지세미티즘)이라는것이잇섯다 이反猶太人主義는該國家의內部에서 自國民族의支配階級이 自民族에게그民族的排他心을 더욱고 ...

그리하야 猶太人에게는 居住의自由、旅行의自由、其他사람으로서享有할一切의自由의制限을하엿섯다 그런데 ...

速記者事務所

裁判所構內에公認

司法省에서는從來부터裁判事件의記錄中證人의證言、被告의供述等은速記者를使用하야 ...

長野事件으로 內閣危機切迫

貴族院野黨이協同問責計劃

長野事件은政府的으로東人問題가되야 內務省을彈劾할만한事實이만흔데 司法權의獨立과 內務當局의責任問題로 貴族院野黨은協同하야內閣問責을 計劃하는中이더라 ...

烟草耕作 面積擴張

賣買增加로 總督府에서決定

總督府專賣局에서는 烟草收納에對하야 大正十五年度에는二千四百七十萬九千七百六十五圓의豫算으로 ...

無産青年同盟

組織統一協議會

去一日부터大阪서開催中

無産青年同盟에서는一日正午부터大阪中央公會堂에서全國的組織統一의協議會를開하고 東京、大阪其他各地方代表者가出席하야 ...

園公後繼는 牧野內府?

西園寺公의後繼로 牧野內大臣이 有力하다는說이잇스며 元老는從來政界의實力者이다 ...

消息

◇朴法務局長一行 北鮮西方視察中이던바 三日午前七時十分京城驛着列車로歸城豫定

橫說竪說

◇아즉도依然中에있는 ... 抗議案은復業하엿든 ...

◇廣東政府는 ... 內閣倒壞運動 ...

◇政本兩黨의 ... 合同 ...

◇所謂帝國에歸化한 ... 秘密會로 ... 말수록하니라

보는대로 듯는대로 생각나는대로
□□□ 忙中閑人

「鐵道第一主義」

조선총독부 래년도예산(來年度豫算)은 텰도데일주의(鐵道第一主義)를취하야 조선의텰도망(鐵道網)을 완성할작뎡이라고한다。

◇

무단정치(武斷政治)를 표방한 사내(寺內)총독은 군경데일(軍警第一)주의를 력행하얏다。그래서 경찰에 헌병을쓰고 문관에게 칼을채웟다。이로써 조선인은、조선총독부가 어…돈바「결과」는 우리보다도 총독부가더잘안다。

◇

문화정치(文化政治)를 표방한 재등(齋藤)총독이 온이후로 「내선」이란 문자가 생기기는 하얏스나 산업데일주의(産業第一主義) 그것이다。이래 빗싼소흔 수리조합의 상려、산업조합령과 농회령의 발표、동척의 이민제도개정과 토디개량회사의 창립등이생겻다。이로써 조선백성과 조선총독부가 엇은「결과」가무엇인지는 가버를보아야알것이다。

◇

군경데일、산업데일、텰도데일 …무엇도선전하나 무엇기도 데일이나。

◇

군경데일은「문화정치」의 뒤에잇든「데일」이라 부무식는 현재의 총독부에서도 용치못할정치임은 인명한터이라 문데도되지안커니와 산업데일은어떠한고? 조선의산업을개발한다는데 누가반대하며 조선의무원을개척한다는데 어느조선사람이반대하랴? 그러나 간도로쫏겨 가고 만주로밀려가는 조선백성이날로더하여가는이현상을엇지하나

◇

「텰도데일주의」! 산업개발과 문화보급에 텬대한관게가잇는 텰도망의완성에로력한다는 소식이 얼마나가륵한고? 이가륵한리상에 누가반대할고? 그러나 우리는「결과」를본다 우리눈에는 결과가 너무도 잘보힌다。「약」이 못치만은사람을죽이면 고약한약이다。「칼」이 못치만은 사람을죽이면 고약한칼이다。이는 오직그「결과」가표준됨이니「결과」가「악」(惡)이오「추」(醜)임진대 표방은 그야말로빗조흔개살구에 불과할것이다。

◇

총독부에서텰도데일을 부르지즐떼에 우리는 문득「결과」의텰도연변일사록 조선토굴이만코 일본와가만흔것을봄떼마다 우리는 조선의심산중곡에서지 텰도가뻣치고 그리고 일본의사당장사와일본의 밀국수장사가늘어갈것을상상한다。

◇

총독부당국자여! 약자의생트집이라고 비웃지마라、색안경쓴편견이라고 속단하지마라 대국(大局)을생각하지안코 소소한리해로써 잔소리를한다고 이런부분문데로써 그대들의발반바하지마라 실상은 우리도 단돌하려고 아니한다、다못날마다달마다 지긋지긋한 현실에 싸돌린 못머가、슬쳐、밋그러진것이다。

◇開闢의今昔 ‖출생한창간호와세상떠난팔월호‖

言論界一大慘劇 開闢에發行禁止
한달걸너압수당하든개벽잡지 이제로부터영원히발행을못해
七年間努力도一張指令에

지금으로부터 팔년전만세운동이 이러나든 긔미년구월이일에리돈화(李敦化)씨리두셩(李斗星)씨외 여러유지가발긔하야 그이듬해인 경신(庚申)년오월이십일에 발행허가를어더가지고 동년륙월이십오일 창간호(創刊號)를 발행한월간잡지개벽(開闢)은 세상에낫하난지 칠년동안에가진고통과 각색파란중에서 쑥쑥히자라나오든바 재작팔월일일 총독부경무당국으로부터 안녕질서를 문란케한다는리유로 돌연히 그발행을금지(禁止)하엿슴으로 동지는최근에 발행되여 압수를당한 팔월호(八月號)데칠십이호를최후로 발행할자유를 영영일허버리고 말엇다더라

指令밧든顚末
뎐화는재작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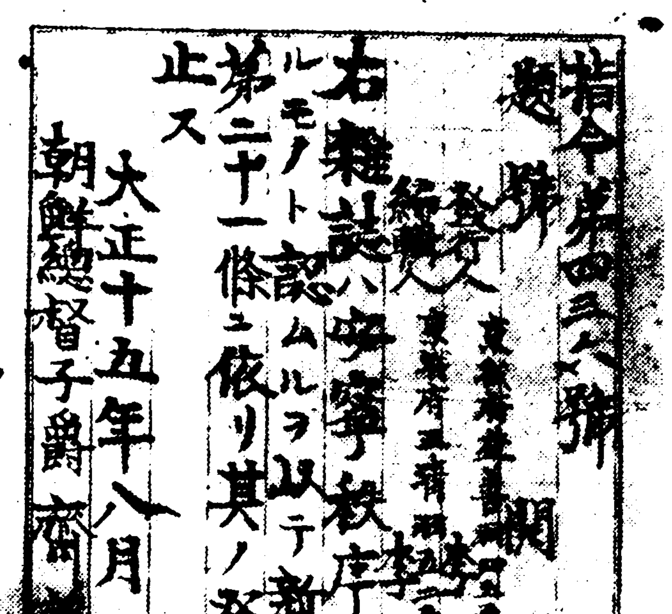
잡지개벽이 돌연히이와가치 발행금지를 당한경로를드르랴면 재작일은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시내 종로경찰서에서 개벽사에 뎐화를걸고 그발행인리두셩(李斗星)씨를 호출하엿스나 동씨가마츰 개벽사에 잇지아니하야 가지못하엿든바 종로서에서는 오후여섯시경에 다시형사를 리두셩씨자택에 보내여 작일오전중으로 동서에출두하도록 부탁하엿슴으로리두셩씨는작일오전아홉시경에 동서로 출두하엿든바 사진과가튼 개벽발행금지의지령을 바다가지고 도라왓다더라

七十二號發行 卅二號押收
—경신년이래로시금까지칠년동안 발매금지발행뎡지로지금은금지—
暴風霜雪七年間!

월간잡지 개벽(開闢)창간호가 압수를당하야 륙월이십오일에 창간호가발당하고 호외를발행로서 순비중 행된이래 지금까지 해수로칠년에총독부 경무국으로부터 발행이요달수로 일흔다섯달 동안에금지의지령을 바다압호로는 영발행뎡지를 당한석달동안을 제영발행할 자유를 일엇다함은 한외에는 달마다 발행되여그중 압파갓거니와 개벽은지난경신 수가 칠십이호에이르럿는데 그중에서 당국의긔휘에 더욱이되여발매금지를 당한것이 전발행호수의 거의반수나 되는삼십이호며 이러케발매금지가 될때마다호외로 발행되여 독자에게배부되엿스며 작년팔월 일일에는 역시안녕질서를문란케 한다는리유하에발행뎡지(發行停止)의 처분을 당하고삼개월 동안발행이못되고잇다가 그해 십일월에 해뎡(解停)이되야다시발행되기 시작하엿스나 해뎡된후 지금까지열달동안에는 일월호와 오월호의저우 두달동안을 제한이외에는 오는대로 발매금지란혹독한서리를 마자오면서도 연해호외가발행되엿섯는데 뜻흐로는 팔월호중에도 당국의 긔휘에더쵹된것이 다섯가지나 되나이번 총독부에서 발행금지란 최후의 처분을당하게 된것은 단순히이 팔월호만이 아닌듯하다더라

兩殿下御歸京
오는팔월팔일에

리왕은동비량뎐하(李王垠同妃殿下)께서는 팔월팔구일경에창덕궁으로참여 하실 작뎡이시라는데 사임경에는 동경을떠나 조선으로도라오실터이라더라(동경뎐보)



子息은죽엇스나 産母는如前健在
—디방에간동지들이모힌뒤에작뎡 엇재든개벽사는여전히활동할터—
發行人李斗星氏談

놀라운소식을듯고 수운이 어린 경운동 개벽사(慶雲洞開闢社)로 차저감에 편즙인 리돈화(編輯人李敦化)씨와편즙주간김긔뎐(編輯主幹金起田)씨는마츰 디방에 출장중이요 그발행인리두셩(發行人李斗星)씨가긴장된 얼굴에 흥분된어조로

『돌연히당한일이되여 아즉아모생각도 업슴니다 총독부경무당국자와는 아즉 맛나보지도못하엿슨즉 지령에 낫타난 소위 안녕질서를 문란케한다는 리유이외에는 하등의말도 듯지못하엿슴니다』고한다 다시 압흐로의 취할태도와 경륜에 대하야 무른즉

『글세요 지금리돈화씨김긔뎐씨도 출장중이요 디방에도동지가잇스닛가 모다맛나서 의론을할차로 뎐보를띄우고 긔다립니다마는『개벽사(開闢社)』란 원래『개벽』한가지만 발행할목뎍으로 생긴것이 아니라 여러가지사업을하는동시에개벽잡지도 발행하든것이닛가 우리동인은 어듸까지든지 개벽사를조직한정신으로써 목뎍한 사업을 계속할뿐임니다 말하자면 아들하나 일허버린 산모개벽사는 여전히 건재할것임니다』하더라

恒常不穩記事 革命思想宣傳
—항상주의와경고를하여왓스나 이번에는할수업시최후의처치—
◇近藤圖書課長談

이에대하야 근등도서과장(近藤圖書課長)은

『현재조선에는 신문지법에의지하야 발행권을 어든언문잡지는신민(新民)시사평론(時事評論)조선지광(朝鮮之光)개벽(開闢)등넷인데개벽은대정구년오월에일부로써발행권을어더가지고 창간호를 발행한이래칠십이호가낫스며텬도교(天道敎)의관심지로서취유에는학술종교에관한긔사를게재함으로써목뎍을삼는다하야 보증금도밧지아니하엿슴에도불구하고 창간당초부터 정치시사문데등에관한긔사를써서 차압이 빈번하엿슴니다 그다음에 대정십일년에 니르러 정치경제일반에 대한 긔사게재를 허락하엿스나 론조는의연불온하야당국으로부터 경고와설유바든일이 일이차가아니외다 이리하야 칠십이회발행중삼십이회가압수를 당하엿고 금팔월호에는 과격한혁명사상선전에관한긔사를 만재하엿슴으로경무국당정무총감 총독부과상의하여 단연한처치를한것이외다』하더라

ML關係者? 본뎡서의활동

시내본뎡서(本町)서를비롯하야 각경찰서고등계에서는전라남도 출생수남면생(手南面生)의 리종연(李鍾淵)이라는요시찰인 물이경성시내에 잠입한형적을알고 그소재를수색중인데리종연은최근 각디에송치되는 과격문(檄文)과하동 관게가잇는듯하다더라

札幌軌道罷業

북해도 삽황(札幌)뎐긔궤도회사(電氣軌道會社)종업원은 십개조의 요구조건을 회사에데출하고 일일아츰부터 동맹파업을 시작하고 백여명은 산중에모혀엿더라(삽황)

民衆의壓迫으로 警官同盟退職?
당야현습격사건이발발한후 경관이압박되여퇴직을협의 治安은自警團의擔任

두보‖일본당야현(長野縣) 경찰서 페지로인하야 니러난분뎨는 아즉도 해결이되지못하야 습격당한매곡지사(梅谷知事)는 방금 입원치료중인데 미구에면관된다하며 최근에이르러 경찰서페지문뎨에 직접관계가 잇는 암촌뎐뎡(岩村田町)사람들은경찰이혐의자를 데포하야 고문한다고 극도로 흥분되여 배척이심한터임으로 경찰관들은 배척에 견대기어려 동맹퇴직을 하리라는바 암촌뎐뎡내 치안(治安)은 경찰관내의손이밋치지못하야소방대와 자경단들이 출동경계중이라더라(당야뎐보)

韓榮大氏歸國 북경가는길에
작일본사를래방

본적을황해도해주(海州)에두고 이십일년전에가족과가치 미국(米國)으로건너갓든한영대(韓榮大)(三)씨는 지난칠월삼십일에경성에도착하야작일에본사를래방하엿는데 씨는 아홉살되든해에건너가서 『캘리포니아』주 『로산젤스』에서가족과가치살면서소학과중학을맛치고재년전에 『스탠포드』대학의과(醫科)에입학하야 금년여름에졸업하고 중국 북경(北京)협화병원(協和病院)으로취직하여가는길이라하며수일후에 북경으로 행하리라는데 씨는이십일년만에고국국토를밟은까닭에 모든것에 감개무량한 태도로

『아모말도 엿줄만한것이 별로 업습니다 다만모든것이 섬섬할뿐이에요 고국에 도라오니 첫재눈에씌이는것이우리동포의생활뎡도가나차운것이올시다 북경으로가서 약일년간 잇다가다시서울로다녀서미국으로건너가겟슴니다』하더라

首犯은不起訴 從犯은豫審
진주서생긴데이박렬사건 종범은예심주범은불긔소
晋州第二朴烈事件

두보‖데이 박렬사건(第二朴烈事件)이라하야 그사건의발생디인진주(晋州)를중심으로하야진주경찰이 동경과경성에서 활동을하야 모모중대범인을 검거하야엄중히취조를 계속한다 함은 두보하엿거니와 이제 그사건의 진상을 듯건대사건의 진범인으로그당시 동경으로 부터압송되여온제희성(諸希聖)(三)은원적을경남하동군(河東郡)에두고금년봄에 공부를더계속하여 보려고여러가지로학자(學資)를구하엿스나 가뎡이본래 간곤하고 도와줄 사람이업슴으로 뜻을일우지못하고그와절친한친구하모(河某)와및 권긔뎡찬우(鄭某)란사람에게 약간의도움을 어더가지고 멀리 동경으로 건너가 고학을하기로 결심하고 림시로 동경시 국뎡구 관내(東京市麴町區管內) 에도로 소제부(道路掃除夫)로로동하야근근히 학업을 계속하든바 지난 륙월십일 순종인산당시를 뎐후하야진주디방(晋州)을다니며신…

冤恨으로殺人
산막을배아섯다고

황해도신천군산천면 룡정리(黃海道信川郡山川面龍亭里)권삼식(權三植)(三)은 지난이십구일오후네시경에 그근처 참외막에서 용진면류천리(用珍面柳川里)리근식(李根植)(三)과 술을먹다가 권삼식이가 리근식이불두덩(內股)을 거더차서 그후로 병석에서 신음하다가 지난이십팔일오전네시에 마츰내 죽고마럿다는데 원인을드른즉 권삼식이가 리근식이가 거주하는 산막에서살든바 리근식이가 이산막을 빼앗기게되엿슴으로 권삼식은 원한을품지못하고 긔회만 엿보다가 그가치 사람을죽인것인대 더하야안악공의송영찬(宋榮瓚)씨가 현장에출장하야 해부한결과 상처공(?)으로 죽엇는데 범인은 엄탐중이라더라(안악)

◇휴지통

전라남도순창(淳昌) 우편소장은 신문검열이 원수라하니 총독부경비 절약과 농을승진책으로인하야 서로생신검무직인가▲밥낫오는것이비요 나는것이 구름이오부는것이 바람이라 하나님도 오래사섯스니 망녕이나시는세음인가 인간의추한상태를 해님이 보기실혀 얼굴을가리움인가▲일본인색정광이 길가는녀자마다 붓잡으면 입맛추고 짓만지고 가진즛을다하다가는 본뎡서에 잡히엿다그런데 이것을『데사단』과라고 부른다든가

絶島風情
◇對馬島訪問◇ (一)

데일회 대마행(對馬行)에실패를하야뜻안든 온천객의호사를 한지십여일만에 다시행장을수습하니 때는지리한장마가 끗친지이틀재되는 칠월이십오일 밤이엇다 삼사일후에동행하자는ㅇ씨두분을 떠러트리고 총총히길을떠나니 몸은차중에실엇슬망정맘은 여전히서울에떠러저잇는듯하엿다 밥업는몸동이만이허수아비의 거름이나아니될는지

◇

친의천동(水義水東)부근의 서보파손으로 인한연착으로부산부두에도착되기는 예뎡보다오십분이느즌이십육일 아츰열시이십분이엇다 그러고 보즉대마가는주환(珠丸)은 출범시간이열시뎡각이라 이십분이는는세음이다 두번재꺼지 실패해서는민합하여야만 되는신문과자의큰실책이라 차중에서부터 초조하야 뎐안히안커잇지를못하다가 부산부두에 나리여서는돈을맛글여유도 업시그냥인력거를모라 주환이출범하는대 이잔교(棧橋)로달려 갓다

◇

차흔항렬도허사! 배는벌서닷줄것고머리를 돌리노라고허야 거품만해면에 삼고잇다순간을 다토는때라 최후의 용력을다하야 배를향하야 신문과자나 배를먼추라고 소리를지르니수부낭비슷한사람이 종선을타고 따라오라는 손짓을한다이 때에내주위에는 구경군이산텁이가치 쌋혀 무슨영문인지를 몰라눈을두렷거릴뿐이엇다 간신히종선을어더타고 앱리켜어 따르니 배에서는 벌서만흔수부들식히여다러매엿든 사다리를다시내리우고 썹이가내손을 붓잡어올리니 뜻하지안흔활동사진배우가되여 해상의모험극일장을 양천히연출한세음이다

新風祭를지나는 永嘉臺도波濤박게
—떠나는배를따라부산항두에서일당환국연습 영가를머도리겨보며남편으로창해를건너가—
水陸巡訪第二隊二班 佐須奈에서萬年壽人

◇

잔잔한물결에 흰파도를 일으키며 목도(牧島)를 쉬고나니 물이청청검푸러간다 대양이갓가웁인가보다 뒤를돌려 바른편으로 멀리부산진 영가대(永嘉臺)를바라보니물우에떠흐르는나무나무와가치 파도에헌들한다 감개가무량하다 녯날사오백년이래로 조선사절이일본으로국서를가지고 부산을떠날때에는 반듯이영가대위에서 긔풍제(祈風祭)를 지나든곳이라 당년의사신들이 국사를위하야 사생을불고하고 창해를건느노라고 애를쓰든생각이눈압헤감감히보히는듯도하다 나라가업서젓스며 사신이업서지고빼가 변하엿스며 풍선이업다하더라도 그당시를추억하야 내자신에일으매 나도또한십만독자의 긔대를 혼자진부관의사신인듯 호호한긔운이 바다를누를듯하엿다

七十錢에利子부터 一等船室을獨占
—선중에서나타난칠십전의큰위력 이동표를사고일등객의조흔신세—
玄海灘風浪中七百噸의珠丸

이동선객당원 이십사명이라 기권부터 만원이라 『보이』에게 칠십전준것이 대번에 효력이발생하야 상층에텅뷔인일등선실을 독차지할행운아가되엿슬뿐더러 련해『카피』가드러오니 아모리돈이행세를한다기로 그러케까지큰위력을나타낼줄이야 꿈밧게생각이다

◇

포구가멀어질사록 물은 더욱 검고푸르러간다 압흘바라보매 하늘이맑은지라 이날의 풍파업슴을 다행히넉이엿더니 열두시가다못되여 한목금바람이 슬쳐지나가드니 배의동요가심해지고 어듸서온지 슬커볼명의안개가 자옥히내려덥히니지척을분별할수가업다 긔선은입각이며다하고 긔뎍을뚜뚜올리니처량한소리가 안개속에 숨어드러 무서운긔분이몸을엄습한다

◇

바다에는 즁경험을가진터라안개에커즌몸을 식당으로쉴고드러가니 이십여명이동객중에식탁에나선사람이 봄과나사지네명번서들 취해서꼼작을못하는모양이다 칠백여돈의적은배고보니동요가 당연하나고할밧게 ……(계속)

第六回決算公告
京城電氣株式會社 第拾六回 貸借對照表 (大正拾五年六月參拾日現在)

資産ノ部	金額
拂込未濟資本金	[illegible]
興業費	[illegible]
營業用品	[illegible]
貯藏品	[illegible]
工事仮勘定	[illegible]
假拂金	[illegible]
未收入金	[illegible]
有價證券	[illegible]
保證物件	[illegible]
銀行預金	[illegible]
振替貯金	[illegible]
現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負債ノ部	金額
資本金	[illegible]
準備積立金	[illegible]
別途積立金	[illegible]
使用人退職手當基金	[illegible]
未拂配當金	[illegible]
契約保證金	[illegible]
身元保證金	[illegible]
假受金	[illegible]
未拂金	[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當期利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損益計算	金額
營業收入	[illegible]
諸經費	[illegible]
營業費	[illegible]
償却費	[illegible]
當期利益金	[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利益金處分	金額
準備積立金	[illegible]
別途積立金	[illegible]
使用人退職手當基金	[illegible]
株主配當金(年六分)	[illegible]
役員賞與金	[illegible]
後期繰越金	[illegible]

大正十五年七月
東京市麴町區永樂町弐丁目壹番地
京城電氣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大橋新太郎
專務取締役 武者鍊三
常務取締役 中屋重樹
取締役 山口太兵衛
同 木本倉二
同 白石…
監査役 福島甲子三
同 白…
同 高津…

眼鏡
注意
대모테大圓形 一圓(特品)二圓
同 老人用 一圓五十錢(特品)三圓
同 水晶알圓形 三圓五十錢(特品)五圓五十錢
紳士婦人用 二圓(特品)三圓五十錢
船來渡金대모테 三圓(特品)五圓
眼鏡은年齡을通知하시고、度數는分明하게記入하야주시요。金銀테眼鏡과렌스種類가具備합니다
京城府公平洞一七○(?)
青山堂眼鏡店

◎純麻製이기때문에시원합니다、이것이夏節衣服으로가장重要한條件임니다
◎優良한麻原料로만든故로다른苧布보다도堅牢합니다
◎大量生産인故로價格이매우低廉합니다
夏의衣服은
金剛山票
改良苧布
◎全鮮各地布木商에서販賣합니다
京城府 京畿道 江華織物花莚組合製造 帝國製麻株式會社發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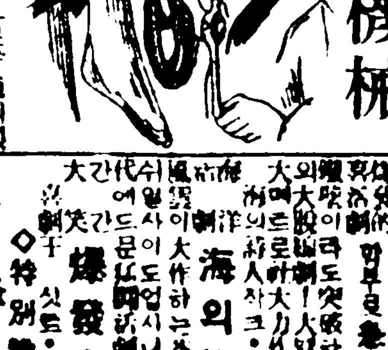
夏秋 蠶種
住友三四郎商店 蠶絲部

移轉廣告
日光釀造場

京城府公平洞七十八番地
西洋料理 太西館
스기야기도 잇소

洋襪製造機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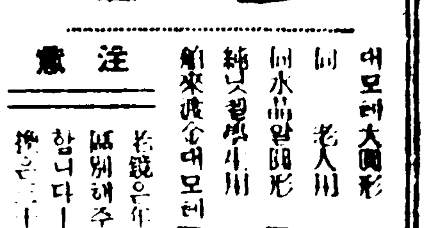
家庭事業
吉多工作所



朝鮮劇場
爆發先生
海의雄叫
愛의光輝
亞細亞의光

李德煥氏大人 以宿患 平壤府 館店里七九番地 自宅 別世 玆以訃告
葬日 八月五日 午後一時
葬地 西將臺
友人 吉善宙

京城自動車講習所



文藝

「紅樓夢」是非 (四)
中國의問題小說
梁建植

四

이서本論에드러가는前提로便槪를말하고原文에나아가 二三의例를翻譯하야보이랴고한다

紅樓夢의主人公賈寶玉은 榮國公家의次男賈政의외아들로大成의美少年이엿다 날때에입에한個美玉을물고나오기까닭에이름을寶玉이라고지엿다 長女元春은入內하야 天子의貴妃가되니 賈政도恩寵으로拔擢이되아

朝廷의大官 이되엿다

그런데寶玉은엇진세음인지 계집애만 조하해서그말에도女子란 물로된것이기때문에 저러케아름다웁고男子라진흙으로된것이기때문에저가치醜하다고하며그리고계집애들의臙脂석은것을보면 넘우조하서고만恍惚하야精神을일케서지하고할고할고하나그럼오로士大夫가된것은 간다바라 하고도모지아니한나 서외아버지賈政이科擧를보이라고 하면 계하는것이寶玉에게는 죽기보다싫엇다 돌상에賈政이將來의뜻을보랴고여러가지物件을버려노코寶玉에게집게하엿더니 寶玉은다른物件은거들떠보지도아니하고 그저염석

金鎖를어더 가지고잇는寶釵에게 것나그에 쓰인文句는寶玉의것과 아조對를일우엇고또그중의 讖語에將來寶玉을가진사람과姻緣을맺는다하엿나 이와가튼일이잇슴으로 自然히自己의配匹은寶玉이라 보고그런듯이마음이 들어잇섯다 寶玉에게對하야는 한갓愛情뿐이지마는 寶釵에게對해서는사랑도엇지마는 寶玉은벗어날수업는因緣에 여배인듯한생각이 업지아니하엿다 그리하야이두女性과두 寶玉사이에얽힌糾紛이 자라가지로

적은波瀾을 이르키지안앗다 어쩌커나아족어린때를 마는 이로부터 쉬는동안에賈政 의부하인 寶玉의父親되는 하는노릇이라 그러는동안에寶 玉의身上에한大事件이 일어나 는 그것은엇던淫賊의 部下노릇 하는妖僧에게 그법에붙고난란 寶玉을빼앗긴것이다 寶玉은그와 가치精神이朦朧하야 헷소리를 하고恍惚한것도하고헷 소리를하며 엇더케하면조흘 지모르고만懊惱하야 엇더케하면 조흔가하고議論이紛紛하얏다

臙脂와釵環

을집어들고그것만가지고노는지라 賈政은 회가잔득나서이子息은將來에酒色의무리밧게는못되겟다하고그後부터그다지 귀애하지아니하엿다 그러나人情은 다맛찬가지라 祖母史太君으로 말하면寶玉을엇지나鍾愛하든지 무에든지 가지고십흔대로하고 십흔대로하게하엿다 그리고입부고 怜悧한侍婢로하야금寶玉에게서시중을 들게하며그것들이 말은무엇이든지들어주엇다그래돌엇다 性質이원래그러한때에 가다시養育이이러하니그寶人은 더말하지아니하야도 알것이다 그러나 大體로말하면사랑스런 點이만코 계집애가치부드럽고 女性도뛰어낫섯다

寶玉의放恣

가천성이 그러하고넘오 甚하야賈政이참다못 하야 여러주먹하면少太君이 뛰어나와서「나를죽여라」하고떠드러 賈政도엇지할수업서 그대로두엇다

女主人公黛玉과 寶釵는모다 家庭의形便으로 當時全盛을極한賈府에와서寄寓하고잇섯다 黛玉은絕世의美人인데다가才學이 無比하고 그리고人品이高雅하며또한非常히 聰明한女性이엇다 그러나 몸이弱하야날마다 병이만코 또무엇에든지생각하고눈물짓는일이만핫섯다그러치마는

寶玉이第一

로마음을두고思慕하기는 이女性이엇다 黛玉도또한은근히將來에 夫婦로自期하고다 - 에게 수緣를바치고잇는터이엇다 또寶釵는일즉이父親을여의고母의兄家에서자라낫는데 오나범이 無賴漢이기때문에그메부으로 엄마음속을傷하고잇섯다 원래 溫柔한 女性으로 남과와흐다거나 衝突한다거나하는일이업시寫事에 操心性이잇고 진중하얏다 이女性도 寶玉과한집內에잇스며 늘가치놀기에 아지못하는동안에 寶玉과서로 相思나 다틈업는사이가되엇다 그런데다가 이女性은어엿씀에 엇더엇데머리ㅅ중(紅樓夢)에 업는것을 보고 그게서逆旅의길이 아니된다 부 - 소

靈魂의香氣(下)
春城

◇ 나는엇던때에는神을밋는나엇더때에는神을잃어버린다 그러나나는그때에도 信仰은 -아神이잇다 이만을當然하다고생각하엿다

◇ 그러나그(神)은그밥사도업고 밥도업서라! 하날이맛혜서 영저緣에서지 다니며 선원여 그들지셧다 기름기우렷다 그러나그(神)은 생각하엿나 그러나神이잇는어둔 나는(人生)의世界에出生하엿다 는것을그리워하다고는 생각지안는다 도리혀는틀이나오리 만치感謝할때가잇다 산다는것은 출거운일이다 그러나同時에산다는것은 너머도 괴로운일이다 그러나그괴로운(生)보다 는나미고요히 그리로옹을의이 고그線을넘어서 그무실香氣이 世界에서 비로소우리는 人生의價値를엇을수가 잇다그 게靈魂의香氣가 잇는것이다

◇ 「自然으로도라가라」하엿거 나와 우리는본시「自我로도라 가라」이것을생각지안으면 아니된다

◇ 우리는銳敏한感受性을가지고 苦惱의線에서서 自我의正面을 보자 우리는처음으로人生이라 는맛과 價値을맛볼수가잇는것 이다 그리고靈魂의香氣라는것 은맛볼수가잇는것이다「시베리 아」荒原을헤매는「마-샨」와그 의子를보자 그들이얼마나괴롭 다하랴 그러나그게는두사람의 곤울드업서는 적은世界가잇고 ...따라서魂에서피여오르는 香氣를엇을수가이지안은가? 「량속을뇌고라도 그게사람의 마음을십으라 그마음을 露西亞의詩人은 이러케부르 지젓다 입히(狼)밥이잇는곳이 면 黃金의나라인들 뭇피는봄

◇學窓欄◇
產業組合
殷栗 李根苾

產業組合은十八世紀頃에英國에서처음으로起興되엇고 그 後世界各國이다 그發達을獎勵한結果로 以今各國에다相當히 普及되엿다 日本에도벌서二十餘年前에 法律로서產業組合法을規定하얏스며 朝鮮總督府에서도 今番에產業組合會을發하엿스니 朝鮮에도將次이새로운 企業을보겟스며 새로운名詞를 부르게되엿다 이제筆者는 旣히日本에서施行하는 產業組合法에依한 種類를들어그目的을 紹介하려한다 現法律에依하면 產業組合은 左의四種이有하니 이제逐次說明하랴한다

가、信用組合 機械의發達로 因하야 現代의企業은全部가大資本을要하게되엿다 그럼으로 小資本家는 事業을計劃할수업스며 資本을借入하라면 信用이不足으로 貸主를得키難하며 設或借入하드래도 高利가되며 期間이短少하야 不利한點이만흠으로 企業이成功을得키難하다 如此한 小企業家가團合하야組合을組織하고 出資하야組合의資本을成立하며 組合의信用으로써 低利資金을借入하야組合員에게貸付하야 企業을援助하며 組合으로하야금預金의便宜를圖하야줌으로써 目的하는組合이다

나、販賣組合 이組合은組合員의生產品을 高價로販賣가容易하게하기爲하는組合이다 雖同一한產品이라도 市場의景況과賣買如何에關한 知識이업스면 都賈商의術方에入하며 又는時期를逸失하야 損失을當케되며 또都賈商의惡術로因하야 地方產品의 信用을墮落케하는事가多하다 如此한弊害를防止키爲하야 生產業者가生產品을組合에委託하야 共同으로 需要者에게直接販賣하면 價格도高騰하야지며 組合에서物品에公平한等級을査定함으로 自然히信用을하야 販路를容易히得하게되는것이다

다、購買組合 此組合은組合員의消費品과 生產의必要品을 廉價로購入함이 目的이다 各人이小賣店에서 買入할것을共同으로都賈로購入하면 廉價가될것은自然한理이다 如斯히購入한物品은 組合員外에一般에게도小賣로販賣하야 그利益을 組合員에配當하거나 또는買入한原價로組合員에게만賣下하게되는것이다

라、生產組合 此는組合員의生產을增加식히기爲함이니生產의必要한器具를 貸與하며生產品을더精美히加工하야 販賣케함니다 如此한組合에依하면資金이無한者도 職業을得할수잇게된다 그러나此組合에서는生產에必要한原料를 購入하며生產品을販賣하여야되나니 購入組合과販賣組合外지 兼하여야되는것이다

以上으로產業組合의說明은맛치거니와 이제朝鮮에나타날產業組合은果然如此한趣意에 하게되라는지를 우리는過去와現在에照하야 疑心하며우리는 獨히우리의覺醒으로 如此한機關을組織하기를바란다(經濟)

汽笛과勞働者

쑤-쑤-
午前다섯時半
눈을뜨라 삼분새라
나이게순時間이지난지오랫나
눈을또라 잠을새라
그리고엿을넘순비를하여라
쑤-쑤-
午後다섯時半
疲勞한너이들은쉬는데가업나
도라가잠자라
來日勞働하기위하야도라가잠자라

勞働詩
勞働者들아
崔華淑

◇
「나」의밧이이고 따라서깃봄이 이다하다

괴로운人生이다 무서운사람 들이다 그러나우리는빗낼수이 고 香氣로울수잇는 그마음을 깁으사 「예수」와함께 못박힌 두사람의 强盜도 그의맘을찻 는同時에 비로소大國에 갈만 한 아름다운사람이 되지안앗 드냐? 눈물과 人情 — 그 우에피는靈魂의 香氣 — 나 는사람의살고십다는것을 여기 서차질수가잇다 「카라마쏘푸兄 弟」中에잇는 長老조시마는 「世上에나가라그리하여 사랑 하라 만일사람이너를때리고 짓밟거든大地에머리를숙이라 그리하여흐르는눈물루써그大 地를적시라」

이런말을하엿다 이얼마나힘 잇는말이냐? 露西亞엇던短篇 小說中에는 自己愛人을빼아슨 男子에게 그의生日을당하야 꼿을보내고 선물을보내여섯다 그리하여 그男子로하여금눈물 을흘니게하고 그愛人으로하여 금녯사랑을記憶케하여 밀경은

그愛人으로하여금 自己품에안 케되는幸福을어더섯다는말이잇다 엇지그엇이라 입센의「海婦人」 中에도女主人公의完全한自由를 許諾하는때에 아니그男子가自 己의苦痛의線을넘을때에배를타 고가랴든그의妻는 다시도라와 다는것이아니냐?

◇ 사람이란善性이잇고同時에 惡性이잇는것이다 惡性이잇 기때문에善性이아름답고 善性 을찾는努力이잇는것이다 사랑 이란귀한것이다 사람은永遠히 사람인것이다 神이될수업고따 라서神이되려고努力할까닭이업 는것이다

◇ 「사람은모다 一本生 남으로산 다」

와일드는이런말을하엿다 넘 우도사람은自我를모르는것이다 自己自身의銳敏한批判에依하여 自我를찾자 自我의正體를보고 生活의苦惱를깁히意識하자 苦 惱의線을넘자 눈물로大地를적 시며靈魂의香氣를차저야할것이 다(吉田絃二郎氏의意見을만히 參照하엿다)(一九二六、九四、於東京)

印度洋과地中海(七)
—渡歐手記—
獨逸寓居 桂貞植

求景하고돌아온一行은 다시老木下에잇는 正面에는 釋迦如來를安置 「호텔」압에잇는「가데-크」다 한다 山海百味의 飲食을 供 湖畔을逍遙하며一食을지낸다湖하고 水는周圍約一哩 純粹의冷水를하여잇다 淸淨幽邃한곳이다 後面堂內에人한즉 閑寂幽邃한곳이다 綠林으로包圍되아 數間이나되는 涅槃에佛像이橫 의날은中空에소사 마침十四日在하고 水仙과如한꼿들이나와 한夜景을보매 湖面에反映 님우어芳香馥郁 한夜景을보매 몸이熱帶에잇는 하엿다此處에도 「가小山을 妙 것을悔時忘却케하다 十一時에 善女의參 「베드」에누엇다 諸者가만흔테 巡禮를 맛치고 三十仙이란案內料를주고 歸宿

佛의齒를祀한寺

十一月四日昨日疲勞는 甚하 나千載一遇의 機會임으로 무 朝六時에 起床하야 七時부터 一行이佛齒를奉祀하는「다라다 미-가와」寺에參詣하엿다 寺는 純印度式建築이며 壁面의彫刻 은 一顧無價하게는 보이지안 는다 佛齒를奉祀한本堂前에는 白衣를입은 男女老幼가 數石 土에 跪坐하야 兩手로는 合 掌 입으로는經文을 讀하며 熱心으로禮拜하고잇다 案內者 인土人에게 英語로說明을드르 며 經堂內로入하야 梵語로쓴 經書를 보앗다 僧侶는亦剃髮 하고 黃褐色의 僧衣를넙엇고 右肩을 裸出하고잇섯다 貴客 의來臨을 斗내여 거리다가 梵語로 芳名을 記하야 芳名에게준다 芳名은 好記念物이라고 各自 「모이는」에는 一賀(約 一圓)式을請求함으로 一同은 거긔돌내엿다

베라데니아植物園

經覽을나온一行은 다시 喜捉 向하엿다 八時半에朝食을畢한一行은다시車上의人이되여 꼴넘보에오는廻路에「간데-」의 에서四哩되는 「베라데니아」植物園의 周圍는 三面에河가有하고 椰子行路가잇고 廣漠한 한데廣은 數十萬坪 數町에及 하고「샹레」가잇서 姸姸함을競하는 奇花異草의 花壇이잇고 或은 天을摩할만한 老木이 蜒蜒하고 웅을덥흘만한 怪木도잇서 熱 帶食物園中에 稀有한 規模이 엇다 園을一週하고「꼴넘보」에 도착한것은 午後一時이엇다

錫蘭島와人種

이錫蘭島의面積은 二萬四七〇〇 平方哩이며 梵語로楞伽島(랑 카)라하니意味는光輝잇는島라 「꼴넘보」는 此島의首府인데西 에位하고 北緯六度五七分東經 七九度五一分의地點이다 最初 에는亦一寒村에不過하엿스나 一五〇五年 葡領이되고一六五 六年에蘭領으로變하고 一七九 六年에英領이되어 現今人口二 十數萬이잇고 印度洋貿易의要 津이다 人種은最初殖民者인도

火曜小品
病난어린이여
耕壕

— 더욱이在耕者에게 —

사람의特徵이 무엇이냐? 고 무르면 宗敎家는 靈魂이라고 學者는 或 智力이라고 各自의立場을 따라 주어대일테지 만은 이갓흔곳에선 우리로는 사람의 特徵이라면가난(貧)과 疾病이라고 하는것이 그중良心 에로된 對答일듯하다 올흔말이 다 우리에게는 가난과疾病이 라는 무서운特徵이잇다 타고 난것도이것이오 눈압헤보이 는것품속에지닌것이 이것뿐이 니結局가난과 疾病은우리의特 徵이오所有이다

◇ 萬物은各自의特徵과所有를가 지고살고잇다 개는동먹는것이唯 一한幸樂일것이오 毒蛇에게는 毒液이最貴한 所有일것이다 아프리카野蠻은 사람잡아먹는 것이無上의 幸樂이오

◇ 엇던民族에게는법거숭이에 개봄알이 更無의자랑거리일다 그러나 우리는우리의特徵이오 所有인가난과疾病을 가지고幸 樂할수밧게업다

◇ 毒液이나食人은他에게害毒이 나되고 너름거림큰질거리에법 거숭이와개봄알은 野蠻이라는 表現이나 되지만은가난과疾病 은오직이른봄철에 씨를못어노 흔花瓣갓고 十餘年旱災를지나 西天에 떠오는一片의黑雲과갓 흔우리의特徵과 所有이다

◇ 동생아!特徵과所有를당부가 지고잇는 동생아!決코落心하 지마라 너는 이런特徵과所有 를가집으로 네압헤일이만코바 람이만흔것을 벼락갓치쌔다려 야쓰겟다

◇ 그리고네몸에病菌을죽이고드 을노나가 풋쏠을차라 그다음 물네를돌녀 一日에 一分이라 도돈을모흐며 비귀와 눈을敏 活히놀녀 네몸을 세울만한才 干을뵈호라 그리한 다음에야 너의 特徵과所有가 밧고이리 니이에 비로소우리의 現在特 徵과所有의眞理가實現될것을 알되잇지마러라 오-病난어린 이여

◇ 풋쏠을차라 물네를두르라 才干을뵈호라

님을보내고
城津 李俊英

河橋에 님을떠나 보내올제
江南길 萬里라 朝約터니
속히오마 날식인그님이
至今에 書信조차 업서라

울음
松都 康良根

울어서 된다하면
울어나 보올것이
그도소용업스러니
울어선무엇하랴
차라리 니불악물고
쫘오와나 보리라

黑島의作群

埠頭附近은 洋風數層의大厦 高樓가櫛比한店舖가잇고 電車 도잇섯다 土人에는 庭屋仰金 一般에니여 英語가一般普及되엿다

宗敎는佛敎가最多하고其他南印度 에서移住하여온Tamil人이잇고 亞剌比亞에서온Moor人과南洋 에서渡來한馬來人이잇고 其他 無數한混血種이잇다 然이나만 今서지各地에서보든 一大勢力 을펴고잇든 中國人은此處에서 부터는볼수업다 宗敎는勿論佛 敎요 言語는土語外에英語가一 般普及되엿다

洋上의音樂會

十二月五日 同船의誰某의發 起로 洋上音樂會兼夜遊會를開 催키로一決하고 事務員에게 萬 端을依賴하엿다 定刻인八時가 되매 喫煙室에는設한卓上에十 數人이돌나안졋다 日食洋食이 配列되엿는데 半航程을無事히 經過한祝盃로 一同은乾盃하엿 다 그리고 一盃二盃復一盃格 으로暫時歡樂境으로지나고 다 시席을一變하야 音樂會로되엿 다 몬저는蓄音機로乘船人의各 其國歌를하엿스며 其後부터는 銘銘의 숨은도좋던거나도 披露되엿다 日人들의尺八이며 長唄 도좋왓고 西洋人의獨唱도數曲 이잇섯스며 나도 獨唱 朝鮮曲 一節과提琴一曲을奏하여 프로 그람의끗을막게되니 十一時消 燈時間이라 할수업시閉宴이되 엿다 「꼴넘보」에서 「쓰에스」 까지의航程 三千四百哩 十二 日間航海로 歐州航路中에最長 距里이다 其間에는早朝에는船 尾에서 日出을보고晚間에船 首에서日沒을본이다

印度洋의一週間

運動에는 「데크골프」와投輪 이며不然이면喫煙室에서 讀書 或은談話로送歲하엿스며 又는 甲板 「추아」에서 假睡함밤이 다 夜에는甲板에서 納涼하하 던지 或은「트람프」로지내엿다 그리고十一時가되면 就寢이常 例이다

「꼴넘보」를發한지 一週間을지 난十二月十日早朝에는 左舷數 數浬되는便에 水天髣髴한사이 에 亞弗利加東端岬角이眼界에 나타나자 香港出發以來보이지 안튼 鳥群이 船의周圍로돌고낫 게飛翔하야 無聊한洋上을 慰勞 한다 「골넘보」出發以來開設한 「데크골프」은 朝晚浴客이奔走하 나數哩에不過함으로 水泳은不 能하엿다

어린이소식

소년무전려행

경남마산(馬山)공립보통학교 제학년의박근조(朴根祚)(十六)와 동교졸업생김종렬(金鍾烈)(十七)두 소년은 주고적을탐승할 목뎍으로팔 월오일에 마산을떠나약이십일 뎡으로각디를 무전담사하면 서경부까지려행을할터이라는 데가는곳마다소년단테를 차자 토론회를 열며소년단테가업는 곳에는 소년운동을선전하기로 한터이라는바 려행일뎡은다음 과갓답니다(마산)

八月五日馬山發六日密山七日 支鳳八日大邱九日永川十日十 一日十二日十三日慶州十四日 十五日蔚山十六日彥陽十七日 十八日密陽十九日梁山二十日 東萊二十一日二十二日東萊二

해주하긔아동학교

황해도해주남본뎡 교회에서는 금번하긔를리용하야 아동성경학교를개최하고 지난 이십삼일부터 팔칠일까지열 흘동안 성경、창가、수공、운 동、국문등을 교수하리라는바 년령은칠세부터십오세의아동 까지모집하리라는데 일본여러 어린이들은 만히입학하기를바 란답니다(해주)

허시모성도강연

황해도해주군 소년련맹(海州 郡少年聯盟)에서는 지난이십 일오후팔시 해주청년회관에서 허시모만행사건 진상보고급 성토연설회를 열엇답니다 (해주)

十二日二十四日金海下馬二十 五日

가뎡고문
마음가운데괴롭음이 지신이해결치못합사정을가지신부인네들을위하야이란을내엿습니다『동아일보가뎡란』으로될수잇는대로간단하게투서해주십시오일흠은익명으로하셔도조흡니다

(問) 저는이십삼세된남의안해 올시다 혼인한후근팔년동안이 나남편과정이업시살다가 지금 은남편이 다른신녀성을엇어 들엿지나햇슴니다 그래도나는 남편과가치잇슬가요? 다른곳 으로시집을갈가요? 그만이어 린몸을 죽여버릴가요?
(중화일녀자)

버린몸을엇지할가●●●

(答) 애정이업는부부가가치살 면서로미워하는것보다는 떠 나버리는것이 올슴니다그후에 는혼자사실수잇스면 혼자사서 도조코 다시시집가서도조흘것 이올시다그러나 팔년이나가치 사섯다하니 아조서로미워하리 만치애정이업는것은 아닌듯합 니다남편이 일시뎍변심(變心) 이라하면남편의 마음이도라서 기를기다려볼 필요도잇슬듯합 니다(긔자)

新刊紹介
新刊紹介를願하는冊子는本社學藝部로보내주시오

▲새벗(八月號)참새의쉬올구경 벼룩모기其他四六版五〇頁價 十錢京城鐘路二丁目四二其社 振替京城一四六八三
▲어린이(七月號)바람과번개불 실은업서도몰려라其他四六版 七〇頁價十五錢京城開闢社振 替京城八一〇六
▲별나라(너름特別號)개고리鯉 魚두마리팔리여가는개고리等 四六版六〇頁價五錢京城永樂 町一의六五其社振替京城一〇 九六

肺病徹底的特殊治療法의完成

肺病患者는刮目하시고이-부르지즘을드르시오!
可恐할病菌은年年히幾千萬의人才와偉人을빼서가오

肺結核、(肺勞) 肋膜炎、肺尖 カタール 氣管支尖 カタール 喉頭結核、腸結核、結核性、腹膜炎에苦痛하시는諸位는偉効를가진本療法을實行하시오

肺病에對한世人의謬見

도루데쓰벼루젼創見者 醫學士 靑山先生談

肺病徹底的特殊治療藥의完成

成實質의眞價는無限의偉力이다

一般世人은肺病의二字로外死의宣告와갓치誤想하는者不少하다 그럼으로確實히認知하고라도될수잇는대로當人及家庭으로도心慮를식이지안으라고親切이만함인 안이라。病人도亦是萬一醫師가正直이肺病으로診斷하는醫師를오히려排斥하며「나는肺病이안이고肺尖タカル올시다」이라는 이同病異名의分辨을못하는不注意者가적지안타。알지못게라 諸君도如此한經路를지나結核第一期를肺病으로認치안이하고始息的治療만하엿슬것이다그것이次期、二期를지난後에야驚動을하는것은恰似自己품속에火災를혜닷지못하는것과다름것이업습니다此等不注意는諸君의自覺을못함에말미아물인가만안이요一般

左의症狀에感覺되는諸君은一刻도躊躇치말고治療를着手할지어다

一、外觀上不健하여지고消化가不良하야食慾이次次減少되다던지
二、그다지感氣가들이엿다고도안을만한데헷기침(空咳)이나더特히아침에조용이러날때와就寢時가第一甚하던지
三、頭痛症이생기고氣運이옷치못하며身體가무거워서何事이던지하기에厭症이생기며조然히怒念에서不眠症이이러나서即肺性神經衰弱이되는것이
四、라던지 조금식熱이생기엿다업서젓다하며午前에는자서이모르나午後三時頃부터느는三十七度二三分內外의熱度가되며氣運이옷치못하야頭痛이나는이良目帶潮熱이된다든지
五、심드는일도하지안어도疲困하여지고곰곰眼邊이라든지頰肉(뼘)이訪이드러나고骨角(뼈)이減少하야顏色이變白되고(뺌)이近來가蒼赤大色이되든지
六、時候의關係와厚着도안이하엿더래도就寢만하면盜汗이몸에젓시난다든지
七、(가삼)이몸시뛰고安着지안코大段한運動도안이하고
八、興奮이잘된다든지
八、조금한일에도가삼이답답하여지고呼吸하기도가어려워지는等이든지
九、아모일도하지안어도不然히肩(억개)이뻐근하여지든지
十、처음에는粘液이潮하게버리지고만어지서毛가든血線이석기어次次血塊가되어서即初期、一期의症狀이며全部로一部로만始初되는사람이이다

從來의藥은何故로効能을엇지못하얏든가?病者는先히藥劑의選擇이第一必要이다

肺病의黴菌(本體)은圖面에表示한것과如히蠟性皮膜脂肪性皮膜即이이도이라하는强力을가진二枚의膜을지버리쓰고잇다。到今까지各種의肺病藥이出現되엇스나이에를이한此膜을透明케하고黴菌의本體에作用으로殺菌치못하고終末에는無効가되고말엇스니그런故로肺病에는藥物이업다고誤解하는사람이적지아니하다。

又그럼으로醫師도健胃劑나鎭咳劑나解熱劑等의對症療法만으로處分하는데不過한지라況且村間에多數濫用하는賣藥이나草根木皮나化學藥의類로하야批評할餘地도업는것이다。

肺病의原因인黴菌이一八八二年에「고쓰호」博士가發見한黴菌이란것인데此黴菌이我等의肉體를破壞하야此物質을吐出함으로熱氣가發生하며咳嗽가나기시작이생기며胸痛과生成하이나기

此病症이의發病이우리을破壞함이라그럼으로外로此黴菌을防止만하면最後에一定하지만도摧滅시키면此等의病症은다소快하시는것이다그러한根本을不顧하고世人은此에對하야하야다는根本問題에對한一時的鎭咳만注意하야本藥의服用하는薄弱한으로病勢가조금낫기도한으로그리하고곳치하야一進一退로完全히治療하기어렵은지라一가되는데어려운것이다。

이러한의精神上으로도본者는不少하여本療法을發見한의도그러한비록인비의原因은그중의어려운것이다。精神으로는一層悲觀가되야다가야서방의도의理하기어렵고完全한治療法이되는根本的治法이업스며完全한治法의結局이업는것이다。

一定한大信念으로合理的治療를受치아니하면根治가어려운것이다。

에서 發明된 本療法은 如斯한 肺病에 對하야 根本的으로 合理的 治療를 受하기 容易하며 速히 服用할 수 잇는바이다

肺病患者의 服用은 此數個月에 確實한 結果가 有하다 何故오 本劑는 肺黴菌의 本體에 作用하야 蠟性皮膜 脂肪性皮膜을 破壞하야 此肺病의 根本을 除하는 것이다

躊躇치말고 喫怯치말고 本療法을實行!!

千百의體狀과理論보다實効가第一

總發賣元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電車通 藥學士 柴崎禄明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電車通 關西發賣元 柴崎仁壽堂支店
大連市代町大通 滿洲發賣元 柴崎仁壽堂支店
朝鮮總發賣元 京城府黃金町一丁目 柴崎仁壽堂支店 振替京城一四六六〇 電話(本局)一六六八

附屬診療設置 肺病早期診斷
肺病無料相談

地方論壇

池波里川改修工事에對하야

開城 一記者

池波里川改修工事說은 昨昨年부터 具體的으로 일어난말이다 昨年 大水害로 開城으로서 前例에 못지못하던 慘禍이 연첫다 水害로 因하야 四千에 각가운 家屋과 五人의 死傷이 적지아니하엿스며 財産의 損失도 四十萬圓以上에 達하엿다 한다함으로 肝膽이 서늘하얏든 一般市民은 此川의 改修工事를 絶叫하엿다 이에 川邊改修工事運動이 일어나 或은 道로 或은 總督府로 交涉이 非一非再하엿스나 其後 工事가 設計되지아니하면 開城市民들은 同年中의 途가 업는것가치 失望하엿다

그런데 明年十一月頃에 土木企業株式會社의 손에 第四第二州區工事가 一萬六千餘圓에 落札이 되엿다 이 役事가 始作된지 얼마아니되여 池波里川東側에서는 作業을 中斷하게 되엿다 松都面에서 此에 對하야 嘆願하엿다 그리하자 工事는 그렁저렁 停止된後 그대로두고 工事를 始作하지 아니함에 對하야 一般市民은 크게 不平을 가지고 잇다

(以下 本文 印刷 不鮮明)

警察署依托이라고 郵便所에서 新聞檢閱

新聞오는대로풀어 노코張張이檢閱

淳昌서생긴怪常한일

元來淳昌의 集配郵便物은 全南潭陽을 經由하야 自動車便을 引用하든터에 過般洪水로 因하야 지난 二十二日 發本報 其他郵便物이 二十四日에 겨우 到着케되야 配達이 時急함도 不拘하고 一時間以上을 自動車部에 積置하엿다가 또다시 郵便所에와서는 무슨까닭인지 本報及 朝鮮日報를 散散히 푸러노코 所長江口氏는 儼然히 新聞題目새지 一一이 檢閱하야 여기서도 一時間以上을 遲滯한 뒤에 配達케되엿스며 二十五日은 二十三, 四, 五, 三日間 兩新聞을 亦是 산뎜이가치 싸어노코 前日과 同樣으로 郵便所에서 一一히 檢閱하매 配達에 만흔 困難을 加케하엿슴으로 넘어도 沒常識함을 憤慨하야 그 理由를 質問한즉 警察署의 依托이라고 無責任한 말을 하엿슨즉 이것이 果然 警察署의 依托인지? 만일 警察署의 依托이라 할지라도 地方警察署로서 新聞을 檢閱할 權能이 업슴이 確然하거늘 이와가치 郵便所에서 檢閱함은 所謂 今日의 法治國에 잇서서 容恕치 못할 일이라 하야 一般은 이 問題를 大段히 重視한다더라(淳昌)

讀者慰安

本報平康支局서

本報平康支局에서는 一般民衆에게 讀書熱을 鼓吹하고 本報讀者에게 興味를 助長식히기 爲하야 今月 五日을 定期로 左記方法에 依하야 懸賞抽籤을 한다더라

◇抽籤方法

一、本報를 一個月以上繼續愛讀하는이로 「假令今月一日부터 本月卅日까지繼續愛讀한九月五日抽籤(但日報代金을 完納한者에限함)」

一、當選者는 本報에 發表하야 本支局에서 公平無私히 抽籤하야 公正히

(平康)

一、賞品은

一等 一人 本報 一個月 無料購讀券

二等 一人 當月 新女性雜誌 一冊

三等 一人 當月 分 어린이 雜誌 一冊

禾湖勞親 夏期巡講

去月末日白山서

既報=全北不湖里勞農親睦會에서는 今番 夏期를 利用하야 各處를 巡廻講演한다 함은 既報하엿거니와 그間 四隊로 分하야 前般에 報道한 各處를 巡廻하고 終末로 지난三十一日 白山에서 ...

釜山勞働會

去月末日創立

釜山에는 아즉까지 勞働運動의 中心團體가 업서 運動이 組織的으로 進行되지 못하여 만흔 支障이 잇다 하야 今般에 勞働運動에 有志한 이의 發起로 實際勞働者 多數가 募集하야 去七月卅一日午後九時에 水晶町 勞南館內에서 釜山勞働會 創立總會를 開하고 臨時議長 李汝和 氏司會로 左記各事項을 決議하고 同十一時에 閉會하엿다더라(釜山)

◇決議

一、發起報告의 件

一、規約通過의 件

一、幹部選定의 件

◇演題及演士

勞働者의 覺醒을 促함 文秉烈

勞働의 本位 權宗烈

우리는 어데를 차저갈가 徐宗奎

團結은 우리의 武器 朴東洙

農村의 疲弊를 보고 吳判權

今日의 社會相 辛宅權

兆立치못할 二大階級 金勝洙

一日午後八時부터 扶安郡白山市場에서 白山勞働親睦會主催下에 各隊가 聯合하야 講演會를 開催한바 當夜는 마참 日氣가 不順함에도 不拘하고 各處에서 雲集한 群衆으로 더부러 大盛況을 呈하엿는데 定刻이 되자 拍手喝采裡에 文秉烈氏의 開會辭가 잇슨後 左記와 가치 演題及演士의 講演이 잇슨 바 聽衆의 喝采는 連續不絶하엿스며 間間히 臨席警官으로부터 注意中止의 連呼를 加하며 場內는 자못 緊張하얏다가 盛况裡에 閉會하엿다더라(不湖)

◇演題及演士

正式裁判

第一回公判

即決에不服

所謂寄附强請事件

慶南河東金桂英氏(時代日報支局長)는 河東無産子女의 當面教育(幼稚園, 勞働夜學, 婦人夜學)을 爲하야 教育協會를 組織하고 其會員募集事件으로 河東警察에 犯處罰規則違反으로 科料十五圓에 處한다는 即決言渡를 밧고 그에 不服하야 正式裁判을 請求하고 金山地方法院晉州支廳에 提出하엿든바 지난달 二十九日午前十一時에 晉州支廳에서 第一回 裁判이 열니엿는데 被告金桂英氏는 原告證人 河東邑金敬守에게 對하야 寄附强請及 暴行事實全部를 否認하는 同時에 ...

茂長勞働會

定期大會開催

二十九日에

茂長勞働會 第九回定期大會를 七月二十九日午後一時부터 會員百五十餘名과 來賓四十餘名 列席下에 同會館內에서 會長金容浚氏司會로 開催하엿는데 左記事項을 決議하고 來賓祝辭로 午後五時에 閉會하엿다더라(高敞)

◇決議案

一、本年度부터 無産子弟를 爲하야 夜學會를 開催할 事

二、惡地主의 小作料高捧을 防止하고 斗槪를 使用하도록 할 것

◇新任役員

會長副會長各 一人外 五部 十七人

「校長은絶對不信任 子弟는登校挽留」

北靑女普教室貸借問題와

同校學父兄會決議

咸南北靑郡北靑面女子公立普通學校學父兄會에서는 그의 校長 木之下의 校舍를 山十組에 貸與하야 學父兄會가 問題를 삼은 것은 本報에 이미 報道한 바어니와 同校長은 此를 敎舍로 許할 수업다는 意思를 傳達하엿다함을 憤慨하야 校長을 不信任의 學父兄會를 再次臨時總會를 同校舍內에 開하엿는대 勞働에 可觀할 것은 同校學父兄會長이 召集한 學父兄會議에 許치아니한다는 말인가 하며 一時 靑年가 不信任한 校長이니 所用업는 말이라 하며 議事를 進行하려고 할지음에 郡守와 郡庶務主任이 官憲을 擁護하는 態度의 말에 잇슴으로 群衆은 그만 치다가저 豫定하야 會議를 進行하엿다는데 敎育의 趣旨에 違反하야 不法行動을 하고 도우리 決議를 無視하는 校長은 絶對不信任하되 子弟의 不登校를 斷行하기로 하엿는데 實行方法으로 左와 如히 決議하엿다더라(北靑)

◇決議

一、此決議事項을 不參한 學父兄에게 一一히 通知할 것

一、實行日字는 決議日로 校長辭職日까지 하기로 함

一、實行委員은 北靑面各區 二人式

巡廻採訪(卅三)

‖全州地方大觀(2)‖

全州 一記者

產業界

◇農業=農業者數는 本人戶數 二一五戶에 人口가 九二、人口數가 ... 外國人戶數 ...

◇畜產 牛四、五八五頭 馬七二頭 驢 五頭 山羊 一八六 豚八 ○九六頭 鷄四八、○○

◇特產品 苧紙 扇子 油紙 朝鮮紙 油綿 乾柿 生干 乾柿 油紙 縮紙 果 梨 肉醬 韓紙 等

◇商業 商業者數 日本人戶數 ... 人口가 ...

◇工業 日本人戶數 ... 朝鮮人戶數 ...

◇副業 大概 농가의 副業으로는 ...

(以下 本文 印刷 不鮮明)

名勝古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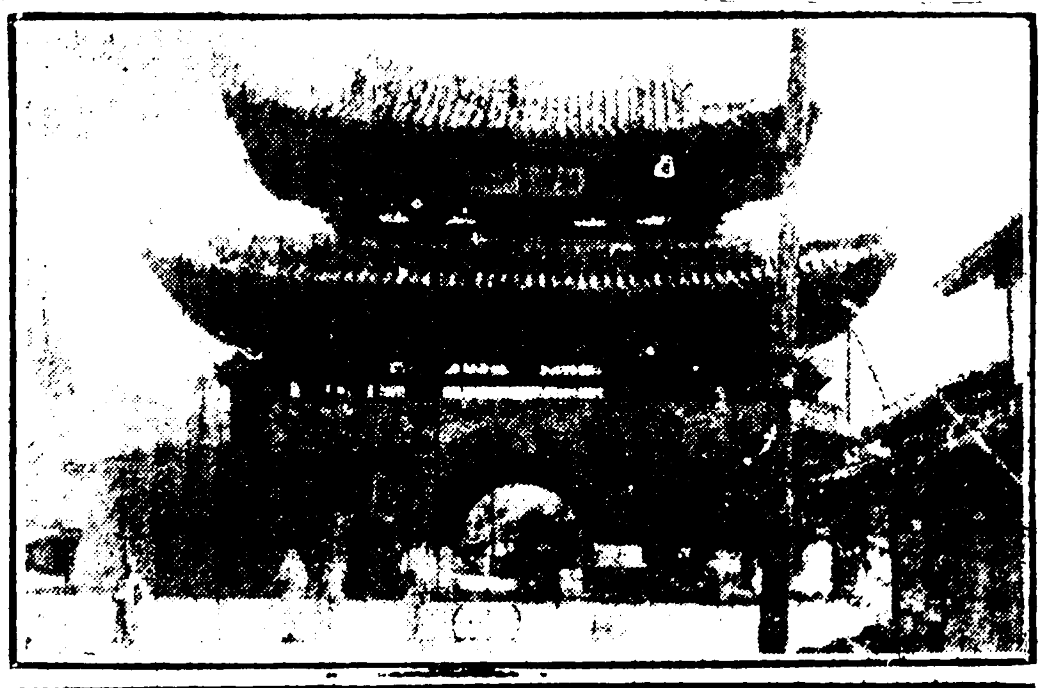
◇完山八景 예로부터 全州의 風景을 돕기 爲하여 나려오는 八個所의 景致을 말한 것인데 一一이 枚擧할 것이 면 寒碧淸烟 麒麟吐月 南固暮鐘 多佳射帳 德津採蓮 飛飛落雁 西川漂母 東浦歸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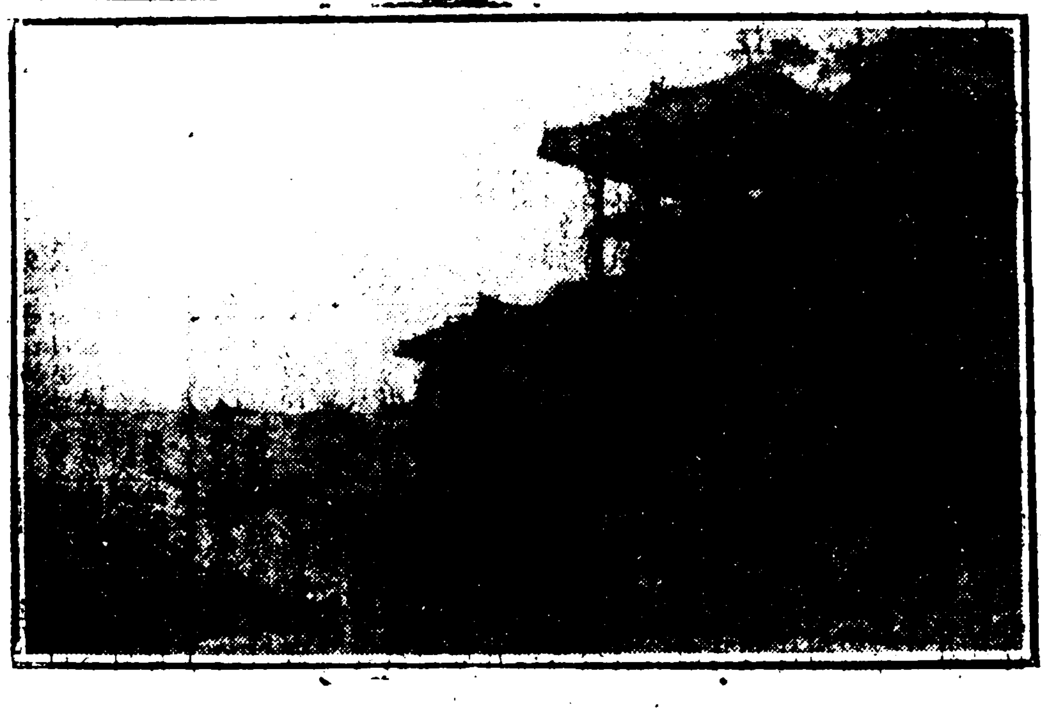
◇慶基殿 太祖高皇帝의 第一子太宗大王時에 建築하여 (不今으로 約五百二十年前) 太祖高皇帝의 影幀을 奉安한 殿이라 오직 朝鮮에 한 아인 全州의 자랑거리다

◇寒碧樓 不今으로 約六百年前에 崔月塘(諱潭) 先生이 일즉히 朝廷에 奉仕하다가 其母堂을 奉養키爲하여 休退를 하고 南方으로 나려와 이곳에 寒碧堂을 建築하엿다 하며 崔月塘의 遺跡으로 下流川이란 井戶가 이곳에 잇다 수에 崔月塘의 碑閣이 잇고 先生의 외친바 斷入岐陽韓破後에 湖南第一關人이라한 詩가 有하며 (未詳하여이것으로 (光山鄕川鳶飛魚躍) 이란 八字가 有함

◇梧木臺 我太祖께서 雲峯에서 倭將阿只拔兒를 征服하고 도라오서 此梧木臺에 登하사 宗族을 모아 大宴을 設하엿고 宴會를 맛치고 外는 大風起兮雲飛揚 安得猛士守四方이라고 노래를 불으셧다 한다 此歌를 日大風歌라 云하며 이곳에 碑閣이 有함

◇南大門 此門은 元來明見樓라고 稱하엿던바 觀察使洪樂仁氏 到任하여 改修한後 豐南門이라고 改稱하엿다 하며 이門에 五鋪이 잇서 朝夕으로 올녀 時刻을 報하엿더니 수에는 其鐘은 客舍로 옴기엿다





上은 全州南門 下는 寒碧堂

社會相大講演

馬山記者團主催로

馬山記者團에서는 每月一回式 社會相講演會를 開催하고 一個月間 馬山社會에 이러나는 諸般事實과 그 裏面에 潛在한 秘密을 調査하야 듯긴대로 一般에 公開하라든바 去三十一日下午九時에 馬山俱樂部會館內에서 第一回로 馬山社會相講演會를 開催하엿는바 定刻前부터 雲集한 男女聽衆은 場內場外는 立錐의 餘地가 업시 混雜을 이루엇는데 會員金致東氏가 定刻이 되매 該團幹事金致東氏가 開會를 宣言하고 이어 簡單한 趣旨說明이 잇슨後 豫定한 演士諸氏가 順次登壇하야 一個月間馬山에서 이러난 事實과 各社會現狀에 對하야 여지업시 批評을 加하야 一般聽衆에게 覺醒을 促하며 馬山社會의 向上發展을 爲하야 氣勢를 鼓吹식혀고 盛況裡에 閉會하엿다는데 當日 演題及演士는 如左하다더라(馬山)

◇演題及演士

내가 본 探貝職業婦人 金 灘君

記者의 눈에 빗친 馬山夜景 金海龍君

一記者의 눈에 빗친 馬山社會相 扈 海君

平康教育會創立

平康

平康教育會創立總會는 去月廿五日上午十時半부터 委員長事務所에서 平康公立普通學校內에서 開催하고 議長이 趣旨說明會側規約通過 其他任員選擧等을 順次進行하고 同下午二時頃에 閉會하엿다더라(平康)

實業講習會

黃州教育會 主催로 黃州公立普通學校內에서 三十名을 募集하야 實業講習會를 開催한다는데 이에 關한 同時에 一般 講師는 黃州公普校及農業學校職員一同이라더라(黃州)

全州警察의 無理한 禁止

湖南學生巡講

既報=在東京湖南學生親睦會에서는 夏期學術講演隊를 組織하야 故鄕各地方을 巡講한다는바 去月二十九日에는 全州에 來着하야 當日下午九時에 全州公會堂에서 大根成烈氏의 開會辭를 비롯하야 講演은 學大樑永勝氏의 『社會現狀의 二三考』라는 問題下에 熱辯을 吐하든 中 臨場警官은 注意를 連呼하고 그대로 繼續하면 斷然히 中止를 命하겟다는 無理한 抑壓을 加함으로 場外場內에 立錐의 餘地도 업시 會集된 聽衆은 極히 興奮되엿는 中 中央大學 崔陽淳氏가 ...

機業講習開會

定州郡

定州郡에 잇는 臨林講習所는 郡校에서 經營하든 것을 道令에 依하야 解散되고 그 後身인 機業講習會는 그 開會式을 再行하기로 하고 去月十二日 午前十二時에 同講習所에서 郡守 孫應鎬氏의 開會辭를 비롯하야 來賓祝辭가 잇슨 後에 卒業式을 擧行하고 講習生은 二十名이요 教員은 官川邊業學校出身인 朴孝敬 孃이라더라(定州)

投書函設置

本報平康支局서

本報平康支局에서는 今番 記事를 採得키爲하야 去一日부터 左記場所에 投書函을 備付하엿스니 多數投稿하야 주기를 바란다더라(平康)

◇設置場所

一、西邊里普通學校入口北側

二、郵便所北側本報支局入口

三、(沙里院警博卒業式

◇投書注意

投書에는 勿論匿名이 잇지 만支局에서 調査하기 容易하도록 資料를 充分히 記入 明記할 것

道路使用

埋立許可

◇二十三日附로

馬山府南馬山驛에서 漁船倉 外지通하는 道路에 使用할 埋立면적을 二百五十二坪을 지난二月附로 許可願을 提出하엿든바 去月十三日附로 左의 條件을 附하야 許可되엿나더라(馬山)

一、埋立面積은 願書添付圖面의 一、區域二百五十二坪으로 할 事

二、埋立의 目的은 市街整理로 할 事

三、埋立工事는 願書添付設計書及圖面과 如히 施行할 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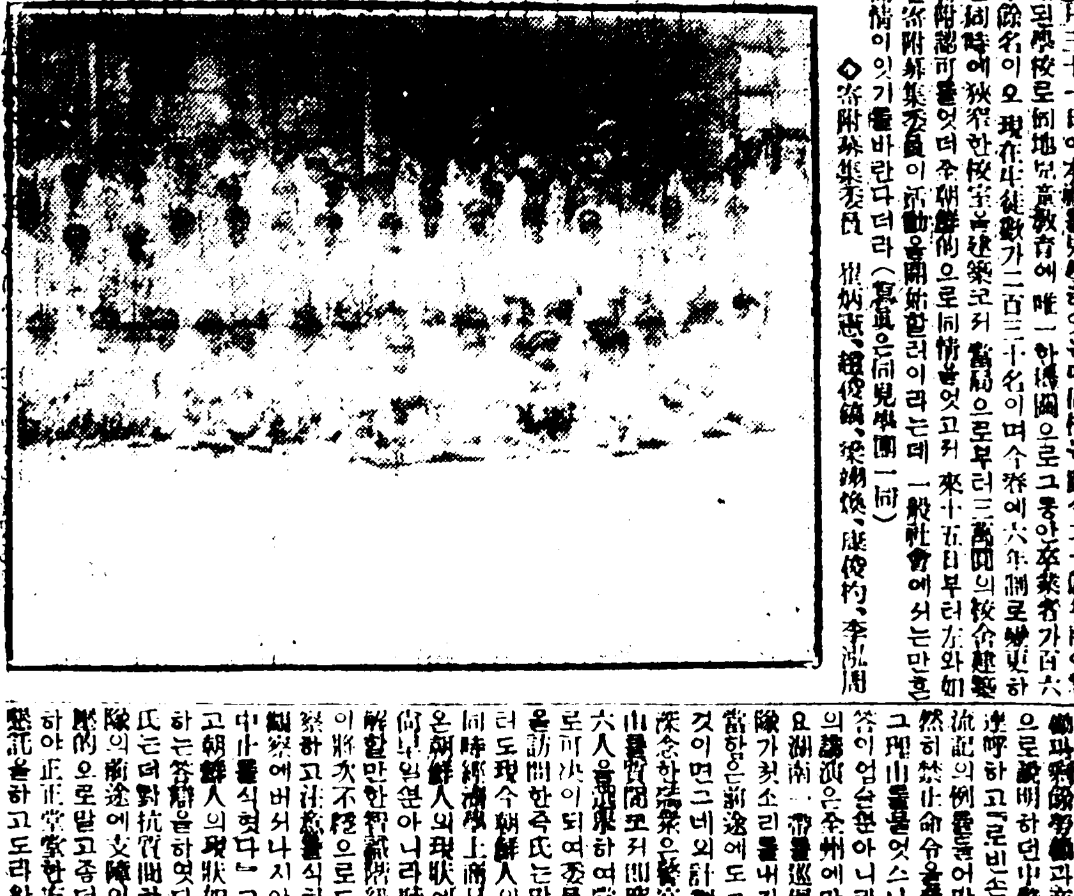
四、埋立에 關한 工事는 免許日부터 起算하야 八個月內로 着手하고 大正十六年三月三十一日外지 竣功할 事

五、工事竣功과 同時에 道路溝渠及護岸石垣는 國家에 歸屬함

錦溪校生本社見學

市外西江에 잇는 私立錦溪學校生徒四十名과 職員九人이 同校副校長 康俊均氏引率下에 去月三十一日에 本社를 見學하엿는데 同校는 距今二十餘年前에 創立된 學校로 西江地方兒童教育에 唯一한 機關으로 그동안 卒業者가 百六十餘名이오 現在生徒數가 二百三十名이며 今春에 六年制로 變更하는 同時에 狹窄한 校舍를 建築코저 當局으로부터 三萬圓의 校舍建築寄附認可를 엇고저 來十五日부터 方와 如한 寄附募集委員이 活動을 開始할 터이라는데 一般社會에 同情이 잇기를 바란다더라(寫眞은 同見學團一同)

◇寄附募集委員 崔炳憲、趙俊鎬、梁瑚煥、康俊均、李泓周



緯新現狀의 一部面

(本文 印刷 不鮮明)

南朝鮮蹴球大會

◇日時 八月五六兩日(雨天順延)

◇場所 裡里公普校運動場

◇申請期日 八月四日까지

◇申請場所 裡里東亞日報支局

◇抽籤 八月四日下午八時

◇選手 身長五尺一寸

◇參加金 不少一團

◇主催 裡里少年會

◇後援 時代, 朝鮮, 東亞三支局

金剛山探勝團募集

◇探勝地 內外金剛、海金剛、元山、京城、仁川、月尾島

◇往復日數 十二日間

◇會費 一人四十五圓(一切費用)

◇出發期日 八月五日午前六時

◇申請期日 八月三日까지

◇申請場所 東亞日報群山支局

◇主催 釜山日報群山支局

第三回關西庭球大會

◇場所 黃州靑年俱樂部

◇時日 八月九、十兩日間(雨天順延)

◇參加組 一組

◇參加金 一組 三圓

◇使用球 一般

◇申請期限 八月八日

◇申請場所 黃州靑年俱樂部

◇賞品 黃州靑年俱樂部

◇主催 黃州靑年俱樂部

◇後援 東亞日報黃州分局

第三回枇峴庭球大會

◇時日 八月十、十一兩日(雨天順延)

◇場所 枇峴公立普通學校

◇申請場所 朝鮮日報支局

◇申請期日 八月九日午後九時까지

◇參加金 一組 四圓(少年 一圓)

◇參加組 各三組

◇參加資格 西朝鮮

◇主催 枇峴靑年俱樂部

◇後援 朝鮮、時代、東亞支分局

鏡城蹴球大會

◇時日 八月十四、五兩日

◇場所 鏡城高普校運動場

◇申請所 鏡城邑內北靑年會館內

◇申請期日 八月十二日까지

◇參加資格 北朝鮮

◇參加金 五圓(一團)

◇主催 鏡城靑年會

◇後援 朝鮮、東亞兩支局

第二回安岳庭球大會

◇期日 八月廿、廿一兩日

◇場所 安岳公普校庭

◇申請期日 八月十九日까지(抽籤은同日下午八時)

◇申請場所 朝鮮日報安岳支局

◇參加資格 西朝鮮

◇參加金 靑年團三圓 少年團二圓

◇主催 安岳庭球團

◇後援 朝鮮、東亞兩社支局

馬山蹴球大會

◇日時 八月九、十兩日(雨天順延)

◇場所 馬山俱樂部運動場

◇申請期日 八月八日正午(抽籤同日午後八時)

◇申請場所 馬山府後町時代日報馬山支局

◇參加資格 南朝鮮

◇選手 後補二人 十一人

◇參加金 每團五圓

◇主催 在日本馬山留學生親睦會

◇後援 朝鮮、時代、東亞三馬山支局

ClibPDF - www.fastio.com

流失倒壞五十餘戶 死亡失踪四十七名

총독부에 도착된 강원도 대수재의 상보
사자와 실종이 사십칠명 기타 피해다수
總督府着報 江原道水害詳報

강원도(江原道)지사로부터 총독부에 당한 보고에 의하면 지난번 강원도안의 수해피해는 해안과 북부각군에는 그리 심치 안엇스나 그밧게 산틈이 내려 물린곳에는 인축의 사상이 상당히 잇섯다는데 목하 판명된 것으로만도 사망자 사십사명 부상자 여덜명 거처불명된자가 열세명과 가옥류실 도괴가 오십칠호 소실 외에 떠나간것이 다는데 아즉도 조사가 완전히 되지 안엇슴으로 엇더 피해가 더 드러날는지 모른다 하며 행방불명된 열세명의 가족은 경찰당국에서도 의거처가 며욕일수 업서서 그들 종적을 수색하는 중이라더라

原州浸水四十

지난일일의 큰비

강원도원주(原州)읍내에는 지난 일일오전아홉시부터 오후세시까지 폭우가 나리여 사십여호가 침수되여 일시는 큰소동을 이르켯다더라(원주특뎐)

各地晴曇觀測

今日京城은曇

일반으로 호린다

재작일 오전아홉시 데신국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각디의 텬긔상태는 한조선을 통하야 각각달나 비오는곳도 잇고 아니오는곳도 잇는데 그를 디방별로 보면 다음과 갓다더라

▲雨 新義州、奉天、鎭原、平康

▲曇 春川、元山、群山、大邱、木浦、沙里院、木浦、釜山、下關、大阪、東京

그런데 경긔를 중심으로 한 금일의 텬긔예측은 중국황하류역에 더긔압이 생기는 모양임으로 금일도 호리리라더라

各地水災一束

일시침수가옥도만헛스나 작일부터 점차감수하는중

재작일일오전한시경부터 경긔(京畿)광주선으로 출기차게나리는 비로 인하야 수원(水原)리텬 내방백여간이 침수되고 이백여호가 침수되고 경성수원간의 일등도로는 리천(利川) 평택(平澤) 각방면에는 대방(堤防)이 결괴되고 교량이 유실되야 자동차의 교통은 끈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칠백여호가 침수되엿스며 도로와 다리가 끈어지고 피란민들은 황황히 피란하야 큰혼란이 잇섯스나 아즉 일부는 쉬지는 비도 다 동님오후부터는 쓰다지는 비도 적어 이재민들의 감수중이엿슴으로 인축의 피해는 업섯다 하는데 각디로부터 도경찰부 보안과에 도착한 보고에 의하면 아래와 갓다더라

▲利川 재작일일오전네시부터 동일한시경까지 며스섯기 가처 나리비는 복하(福河)에 염(鹽)한자반자가 침미천(淸渼川)에 엄랑하야 수에 이나 증수되여 침수가옥이 오백여호에 달하고 리천ㅣ수원간을 최하고 리천서 각디로 통하는 도로는 거의 다 끈어지고 둘이 넘쳐 교통은 두절되고 일시경성(京城)방면으로 통하는 모다 자동차의 교통은 두절되엿다고 며 리천ㅣ수원간은 재작일오후 한시경부터 교통이 두절되엿다

▲水原 재작일일레로 나린비로 인하여 수원(水原)과 평택(平澤)의 화성(華城)군 오산(烏山)의 경성ㅣ평택간의 교통은 두절되엿고 평택(平澤)은 수원 경상(京城)간의 방면 수리 위에 두자 다섯치 되엿다 하며 평택교사이의 이백오십여가 침수되고 평택의 로부의 더 답이 이 증수는 여덜 사나되여 십백여명 무밭 미아마 안성천(安城川)의 오십여명의 일사병환자가 생젓더라

落雷로慘死

폭우마즈며 논을 매다가

경북(慶北) 고령군(高靈郡) 쌍림면 신촌동(新村洞) 부근에서는 지난 이십팔일 오후 네시경에 락뢰(落雷)로 감천이 되여 무참이 죽엇다는데 그자서한 것은 농부 한(韓)가(?)로 벽이 자빠진 것이라더라(고령)

▲平澤 재작일일레로 오는비로 인하야 온산(溫山)면 오성(梧城)면 안중(安仲)리 도로에는 교통이 두절되엿스며 그 날도 폭우로 모다 물소동을 함으로 압해 볼수 업다 가 그 리된것이러라(고령)

昨日市內雨況

最高廿九尺으로 漸減되는漢江水位

재작일일 오전한시경부터 더욱 쏠기차게 쏘다진비로 말미암아 감수상태에 잇든 한강(漢江)은 다시 증수하기 시작하엿다 함은 작보와 갓거니와 작일까지 쏘다진 비는 그 치지 안엇스나 제 도 상마는것치 지안엇스나 체측(?)갓치 나리든 비가 재작일일오후 부터는 쇠이 쇠이 슉고 가는비가 잇다금 오락가락할뿐임으로 작이일 오전내시에 이십구척으로 최고수위(最高水位)를 보인 우상의 최고수위(最高水位)를 보엿고 다시 감수되기를 시작하야 동일오후두시에 이르려는 이십칠척사촌으로 개속 감수중이라는데 한강의 상류도 감수상태에 잇슴으로 다시 큰비가 오지 안으면 게속 감수되리라더라

이번 비로 인하야 뚝섬(纛島) 부근에서는 이재민이 생기엇스며 한강 리방에(?) 동서(東署)에서는 구조를 계속 하야 교통이 끈어지고 인가도 침수되엿는데 고양군 뚝도면(纛島面) 망원(望遠)리에는 침수된 곳이 만코 물이 재작일오후에는 벌서 감수되엿다더라

▲麻浦事幕 재작일일래로 쏘다진 비로 인하야 한강(漢江)은 증수는 최고이십구척에 이르러 마포도화동(桃花洞) 방면에 오백여호가 침수되엿다 하며 동소(?) 세입방면에서 오십사분(?)이 넘게 되엿다고

▲丁家에殘害 재작일일 오전팔시경에 서대문 외 ... 되엿다고

港灣一瞥

東海岸海洋生活 七

◇第七信 注文津에서

배는 여전히 뚜ㅡ뚜하면서 지처음 분간할수업는 바다우호로 라반친(羅盤針)바늘뜻의 인도를 따라 작구 다라나고 선객들은 곱방이런날뜻한무슨 큰일을 가삼이 조리게 긔다리면서 말업시마조보고 안젓나이다 사람의 심리(心理)란 이러한 경우에는 누가 가르키지도 아나하건마는 제절로 동일이 되는가보외다 지금이 배에 탄 백명에 갓가운 사람의 머리속에는 다갓치 「살아야 되겟다」 하는 한생각뿐일것입니다 미운사람도 고흔사람도 업

焦爆한一分一刻 救主가튼救命袋

水陸巡訪第二隊一班 注文津서 白頭山人

아침관의 인도이고 눈어두운 배는 여전히 진행

근백명 선객들은 다만살겟다는 생각이 잇슬뿐

◇ 내가 물에 빠진다 하면ㅣ하고 생각을 하여 봄에 실로 부적하기 짝이 업나이다 이동실 선반우에 잇는 구명대(救命袋)를 두겻는 랑이 예시고 누구보담 먼저 갑과 우로 뛰여나가 어보ㅡ든 아엇더 케되든지 다른사람들이야 살든지 말든지 내 혼자나 뛰여 드러가서 아모리 무거운 사람이라도

이러케 평생처음 당하는 고생을 올지금까지 여러두엇슬리가 만무합니다 어 ... 지 처지다니 하고 겨우 ... 에 나리는 비로 소한줌 내여쉬엿스나 시간을 보니 새벽세시며 어다 려관 집을 가거우 ...

더러도 눈어두운 배가 압뒤를 못보고 이리 쉬러 가다가 모진 암초에 부다 처서 파선이 됨을 따라 자긔 일생도 못을 맛는 숭거운 죽음을 바라지는 아니 할것 갓삽니다 그러나 세상 바다에 운명의 배를 써우다가 이러케 죽는 사람은 그 수효가 결코 적지 안을 것입니다

이십사시간동안은 불우로 뛰워 준다는 구명대 힘으로 머리만 물 밧그로 내여노코 허우적 거릴 것 그리다가 다행히 어선이 나 보ㅣ트를 맛나 구조를 바들것、그리 고는 버복만입은 알몸이 어느 어

다 종선이 드러오더니 「야례(?)라소ㅣ」하는 무슨 소린지 도 몰을 말을 곡조를 맛추어 불으면서 부 산서 싯고온 여러가지 화물(貨物)을 나리운 뒤에 우리를 그 배로 오르라 하더이다

鎭浦袋어듸멘고 四仙의 踪跡차자

경포대 어듸매요 달마중가보자 신선의 배만 들든 한송뎡은 어듸

雄基丸잘가거라 注文津一泊

츤에 도착하야 우편국에 가서 신문사로 뎐보를 칠것이라 하엿나이다 이러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사록 마음은 더욱 더욱 조급하여 지고 쌔릿쌔릿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다 공연한 헛수고엿나이다 얼마되지 아니하야 우리 배는 여러선객에게 무한히 반갑게 들리는 긔뎍을 길게길게 불면서 주문진포구에 드러섯나이다

◇ 강릉(江陵)은 매우 조흔곳이더이다 산물로 보든지 인구로 보든지 위치로 보든지 강원도(江原道)의 첫재라 하기에 조곰도 못그럿지 아니할것입니다 더구나 한 송뎡(寒松亭)을 비여조고마 케 배를모와 ... 경포대(鏡浦臺)를 괴어 허구 경험 잡이 아는 친구 도 차자 볼량으로 아츰 아홉시강릉 가는 자동차에 몸을 실엇나이다

세상이 모다 맹맹 도라가는 것 갓나이다 이튼날 아츰에는 바다우에서 못 본 강릉 경포대(江陵鏡浦臺)를 구경하려 떠나 ...

간다는 경포대가 이곳에 잇슴으로 그곳 사람들은 강릉 갓게 업는 것 가치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송뎡(寒松亭)이란것은 경포대 염헤 잇는것인데 그 뎡자 외솔은 다른 소나무와 달러서 그 솔 읍잘 라내도 그 쓰리에서 다시 움이 자 라나는 이상한 소나무라 하야 최 초에는 환송뎡(還松亭)이라 하 엿든것인데 차차 그 일홈이 한송 뎡이라고 변하엿다 합니다 「영랑 술랑」이라 하든 신라 때 관동팔경 (關東八景)으로 도라다니며 놀 든 영랑(永郞) 술랑(述郞) 안상 (安詳) 남석(南石)의 네 신선(四 仙)들 가르친 말입니다

暴炎에 鐵道彎曲

室內溫氣百度

일본각디의 맹렬한더위로 일사병자속출 피서민격증

四十年來日本의 暑炎

큰홍수가 스처지나간 일본의 각디는 동경디방(東京地方)을 위시하야 혹독한 더위로 일사병환사가속출한다는데

◇동경디방 일일일오후두시에 중앙기상대(中央氣象臺)의 한란계는 화씨(華氏)구십칠도오부 사지올나가 사십여년 이래에 처음 잇는 혹서인데 바람이 인가와 공장과 연극장의 내부는 일백도 이상에 달하야 동경시민이 하루동안에 먹은 어름은 오십 삼만관에 달하고

◇하옥현(埼玉縣) 동 구디방 디방도 백도이 이도에 달하엿스며

◇횡빈(橫濱) 디방도 일일의 온도가 일백 이도에 달하엿스며 칠도부터 일백십삼도까지 올나 갓스며 일사병환자가 속출하는 데 이를 따라 동경시민이 하로동 안에 먹은 어름은 오십 삼만관에

◇천엽현(千葉縣) 천엽시에 시가씩길위에 머물든 차가산사 가스로 인하야 과차와 뎐차 의 속서로 이하야 상납디 데이러한 더위로 인하야 상납디 「레일」이 허적 휘여저 뎐차가 산사

富士縣被害

사자십육명

긔보ㅣ 부사현(富士縣)당국의 조사한바에 의하면 동현내의 수 재피해는 사망자열여섯명과 수 확이 천부 항수던(水田)일만여뎡 보로 이십만석의 감수를 보게되 리라더라(징강뎐보)

朝鮮鐵道不通

충남 청안역(淸安驛)으로부터 칭주역(淸州驛)간은 홍수로 재작일오후네시 사십분부터 렬차를 부이나 금명일중에 복구될듯하다 고

蘇島落雷五處

우편소압헤도락뢰

재작일일오전열시 이십분경 고양군 룡강면 독도리 (高陽郡龍江面纛島里) 우편소압던 선대와 동면면 사무소압던 선대 동독도리 던선대 ㅣ 모다 다섯군데에 각각락뢰가 잇 섯다는데 피해는 별로 업섯다더라

小兒屍漂着

재작일 팔월 일일오후한시경에 인천부 화뎡(花町)이뎡목 해안에는 난지 수일밧게 아니되여 보이는 계집아희시데하나가 떠밀닌것을 지 나 버든 사람이 발견하고 즉시소판 파출소에 급보하엿슴으로 인천 서원이 현장에 림검한 결과 그는 벌거벗은 알몸뎅이나 뱃곱을 매인 실이 든지 그 매이 법을 보아 조선사 람의 어린아희로 추측된다 하며 그 는 산후 즉시 죽으니가 무엇에 싸 서 바다에 버린 듯 하다는데 인천서 에는 목하 그 범인을 엄중 수사 중 이라더라(인천)

米長老에게警告

폭언한 미국인 당료에게

부보 ‖ 선천 신성학교 (宣川信聖學校) 건축문데로 조선로동(?)은 원래 측량 업자로 그것을 긔 회로 하야 빈약한 농민에게 재산 을 사긔 하고 간요한 수단으로 불 상한 소작 권(小作權)을 압탈하는 위하야 위원사명을 선거하야 각 방 면으로 파견 하야 발현하여러가지 사건을 근거로 이러한 비행이 업 도록 하자는 의미로 경고문을 작 성하야 가지고 교섭위원 사명을 선거하야 직접본인에게 교섭하기 로 결의를 하엿다더라(남창)

(다음 생략) 안양(?)과 한당시 교섭 위원 ... 칭하야 가지고 ... 사다수가 서양사람의 집을 에 오양구락부(五一俱樂部)동 여러단 체에서 ... 일구락부(一俱樂部) 관서긔자단(關西記者團) ... 로동조합원에게 통신사 ... 간로동조합원에게 계속 ... 고 ... 선천으로보내는 동시에 미국인 장 로 감부 ... 씨에게 경고문 ...

非行測量手彈劾

경남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蔚山郡溫陽面雲化里)… 결의문 (略)

朝鮮人學校에 中國語科强制

조선학교에 중국말 강요 교육 표준도 중국식으로

중국정부에서는 길림성 학생들(吉林學生界)(…) 량성의 중동혈도 (中東鐵道) 연선에 잇는 조선사람경영의 일반학교에게 중국어(中國語)과 목을 넘고 중국교육제도를 표준으로 하야 교육을 하지 아니하면 개교를 허락치 아니한다 하겟다는 의미의 동첩을 발하엿다는데 그리유는 리권회수를 방에 잇는 조선사람 학교에 교부하엿는데 그 리유는 리권회수를 하여는데 그 리유는 ... 파조선 사람을 압박하든 바인 듯한 바이러한 압박을 밧게된 다수한 조선 동포들은 속수무책으로 곤난이 태심하다더라

(모국뎐보)

「小學生界」發刊

어린 학생들의 수양을 위하야 시내심 상복(沈相福)씨의 주간으로 「소학생계」(小學生界)라는 월간 소년잡지를 발간하게 되엿다는데 창간호는 금월 십오일에 나온다 하며 그다음부터는 매월 오일에 뎡 긔발행한다는데 사무소는 수송동 (壽松洞) 백이십칠번디에 두엇다더라

理髮業者親睦

재작일 일오후두시에 시내 동대문 밧 숭인관(崇仁館)에서 경성 리발 종업자 친목회(京城理髮從業者親睦會)를 개최하엿는데 참 가자가 수십명에 달하엿스며 여 더가지 간담과 여흥으로 오후다섯시에 폐회하엿다 하며 축뎐축문을 보낸 단톄는 아래와 갓다더라

京城印刷職工親睦會、京城洋服技工組合、新興靑年同盟、漢陽靑年聯盟、朝鮮印刷職工總聯盟、漢陽勞友會、時兆會、漢陽聯合職工同盟、漢陽靑年會、救世軍靑年會、京城印刷職工靑年同盟、乙靑年會

尾行하는主義者에 巡査가感化되여

◇…樂器爭議、首領은前巡査

ㅡ 미행다니든 순사가 감화를 바더서 주의자가 되여 도로혀 로동운동해 ㅡ

금년 사월 이십오일 부터 총파업의 순사가 되여 공산주의자 일권 (總能業)을 이르키여 삼개월이지 난지금까지 게속하고 잇는 빈송 일본악긔쟁의 (濱松日本樂器爭議)는 일본로동조합평의회(日本 勞働組合評議會)의 응원을 바더 서완강한 싸홈을 게속하고 잇는 바이 총사령 평의회 중앙위원 삼 뎐촌사랑(三田村四郞)씨는 대정 륙년칠월 수를 네살 때에 대판 텬왕사 경찰서(大阪天王寺警察署)라(빈송뎐보)

진삼(逸見眞三)의 마행을 담당하 고잇든 중 일권에게서 감화(感化) 를 바든 이 되여 가치 주의자가 운매 몸을 던저 머정 침년 오월 말만에 순사를 사직하자 곳 순사 의미행을 밧는 몸이 되여 잇든 중 지난 칠월 이십구일 권긔쟁의에 관계가 되여 빈송 로동 조합 본모 (?) 의 집홍미테서 데포되엿다더

解散當코또組織 八百船夫組合

평양대동강의 큰선부조합

긔보 ‖ 평양 대동강 선부 (大同江 船夫) 팔백 여명이 선부 로동조합 을 발회하다가 마츰내 해산을 당 하고 검속까지 당하엿섯는데 또 다시 오는 삼일 오전 열시에 평양 기로되엿다는바 그들은 강동고 읍 면 고비리 타팡 (江東郡高面古 飛里炭坑)의 선박 백삼십이 척의 선부 이 백륙십여명과 대동강에 서 로동하는 선박 오백여척의 선 부 오백여명도 합 팔백 여명의 선부 가 대동단결을 하야 이 압호로는 고용주에 대한 여러가지 요구와 로은에 대한 불평을 데긔하게 되 리라더라 (평양)

在日勞總同盟 西部支會創立

금삼일에 발회

일본 신호(神戶)서 신공 회당 (西部公會堂)에서 재일본 조선로동총동맹 신호조합서부지 회(在日本朝鮮勞働總同盟神戶組合 西部支會)창립대회를 개최하리 라더라(신호)

親父失戀을悲憤後 淫奔庶母를刺殺

犯人自首、木浦의慘劇

ㅡ 친부의 실련발광을 분히여 신호 다 라난서모를 면도로 찔러죽여 ㅡ

지난 삼십일일 오후 다섯시경에 목 포부외 죽교리(木浦府外竹橋里) 삼백구십번디에서 돌연히 살인 사건이 낫섯다는데 이제 그 내용 을 들은즉 죽교리에 사는 리 원익(李元益)(…)의 안해 서성녀 (徐姓女)(…)는 지난 유력 오월발 일에 리원익과 동거하게 되야 이 래 무사히 살아오든바 지난 삼십 일에 엇더한 남자 하나가 리원익 의 집에 들어가 그의 안해 서성녀 와 조치 못한 눈치를 보이고 감으 로 리원익은 그 남자의 신분을 물어 쯧든바 그 안해의 말이 그 남자 는 내가 외숙이 령광(靈光)에서 가 치 살든 남편의 아들이라 함으로 그리 알고 잇섯든 중 그 이튼날은 그 남자가 또 다시 그 집에 가서 리 원익의 안해와 수상한 눈치를 보 이더니 필경은 양재물을 가지고 와 다느니 칼 또 목을 씰러 죽이겟 다느니 하는 음직한 소리가 문밧 게 까지 들림으로 리원익은 곳 목 (?) ...

이번은 생활이 곤난하야 목포로 돈버리를 갓다가 서성녀(徐姓女) 를 길거리에서 맛나서 집번디를 물어 차저간즉 너무도 랭대함을 분 (?) 니라 자긔 아버지와 다시 동거할 소망이 업슴으로 빌시에 일어나는 분긔를 억제치 못하고 그와 가치 죽여 바린 것이라는데 천긔 서성녀 와 리원익은 동거한지 이십사일 만에 그 가치 무참한 광경을 당하엿 다더라(목포)

處女飮毒未遂

부친에게 꾸중 듯고

지난 삼십일일 오후 열한시 경에 인 천부외리(外里) 이백이십륙번디 리긔세(李起世)의 맛딸 영희(英 姬)(…)라는 로처녀는 양재물을 먹고 자살 하얏슴으로 그가 치자살 한 것이라더라(비현) ...

老婆自殺

소주먹고자살

딸이 남의 첩 되엿다고

지난 삼십일 오후 아홉시 경에 의주군 비현면 치마동(義州郡枇峴面 …) 사백이십륙번디 서찬 권(徐燦權)의 처 리씨(李氏)(…) 는 중국 소주 두병을 한번에 마시고 고민하다가 죽엇다는데 그 원인 은 천긔 리씨의 딸 서보패(徐寶貝) (ㅡ七)가 선천군 선천면 천남동(宣 川郡宣川面川南洞) 최청엽(崔靑 燁)이와 결혼하야 살던 바 최청엽 이가 가세가 빈한함으로 그동리 변석호(邊錫浩)의 첩방에서 드난 살이하든 중 변석호에게 일백오 십원으로 첩으로 들어가게 되얏 슴으로 보패의 부모는 변석호의 집에 가서 내 딸은 남의 첩으로 줄 수는 업다 하고 집으로 데리고 도 라 가던 중 변석호가 서보패의 부 모를 걸어 의주군 비현면 경찰관 주재소 (義州郡枇峴面警察官駐在所)에 고소를 하얏슴으로 그가 치자살한것이라더라(비현)

投井自殺

고독을 비관하고

지난 삼십일 오전 네시경에 인 천부 우각리(牛角里) 팔십이번 디 압헤잇는 우물에 사람이 빠져 죽은 것을 물 길너 갓든 사람이 발 견하고 즉시 소관 파출소에 통디 하엿슴으로 현장에 나가 검사한 결과 그는 도산뎡(桃山町) 십팔 번디 박영춘(朴永春)의 집에 잇는 상필봉(張必奉)(…)으로 그는 민 시에 늘 고독 함을 한탄하며 세상 을 비관하든 중 지난달 중순경에 도 양재 물을 먹고 자살하려든 것을 집 사람에게 들키어 목뎍을 달치 못하엿더바 이번에는 우물 에 싸저 죽은것이라는데 시톄는 그 의형에게 인도하야 매장케 하엿 다더라(인천)

... 모 경찰서에 달려가서 고발을 하 고 집으로 도라와 보즉 그 동안에 벌서 그 남자가 가지고 온 면도(面 刀)로 서성녀의 목을 면동맥을 씰 러 무참히 죽여 버리고 곳 경찰서 에 달녀가서 자수 하엿다는 바 범인 은 령광군 불갑면 자비리(靈光郡 佛甲面自秘里) 강대협(姜大俠) 으로 살인한 원인을 자백함에 의 하면 천긔 서성녀는 이년간 자긔 아버지와 동거할 때에 생모 이상 으로 사모하엿섯는데 돌연히 금 년 삼월에 검다 쓰단 말도 업시 자취를 감추어 버렷슴으로 자긔 부친은 안해를 일코 그만 실성 을하야 가산을 탕진하고 정 신 조차 달라저서 자식되여 가 지고는 참아보지 못할 디경임 으로 항상 어데 서든지 맛나서 다시 아버지와 결련케 하엿든 바

마시고 자살 하려는 것을 집안사 람이 발견하고 즉시 갓가운 병원 에 입원식히고 응급수당을 한결 과 생명은 구하엿스나 삼주일이 상 걸닐 중상이라 하며 그 죽으라 든 원인은 그 전날 그 처녀의 조모 에게 버릇 업는 행동이 잇섯다고 그의 부친이 몹시나 물한 일이 잇 섯든 바 그것을 야속히 생각하고 빨내 하려고 사다 두엇든 양재물 을 집 안 사람들이 잠든 기틈을 다 려 그것을 마시고 죽으려 함이엇 다더라(인천)

洗手中溺死

원주읍 경남 진주군 성내 (晋州郡城內) 에 둔 박경식(朴敬植)(…)은 수년 전에 진주 촌 청 농장(…) 의 소작으로 근근히 생활하여 오 다가 지난 삼십일 새벽에 우연히 그 농장 주 양 금수 장 수문 (中央給 水塲水門)에 빠저 죽은 것을 아모 도 몰으고 잇다가 여러 시간을 지 낸 뒤에 급수하든 사람들이 그 긔 시톄를 발견한 것이라 하며 그의 죽은 원인은 아즉 알수 업다하는 바 혹세 수하다가 그릇 떠러저서 그가치 참혹히 빠저 죽은 것인듯 하다더라(진영)

遂安에強盜

강탈도주해

현금 삼천 여원 을

재작일 일 일요일 이 엇첫 건마는 평양 서 수색 게 에서 는 사둥(佐藤) 주임 이하 형사들이 총동원을 해 가지고 시내 시외에서 대활동을 하야 모중대범인을 수색하는 모양 이 엇섯는 바 아즉 비밀히 하는 와 닭 으로 자세한 것을 알수 업스나 황 해도 수안군 수안면 (黃海道遂安 郡遂安面) 엇더한 산길 고개에서 동군 읍내 사는 박모 (朴某) 라는 사 람이 삼천이 백원의 현금을 가지 고 가다가 한명의 장뎡을 맛나 며 격투를 하다가 마츰내 중상을 당하 고 범인은 그돈을 전부 쌔아서 가 지고 도주 하엿는 바 그 범인은 인 가조밀한 평양에 들어 와서 잠복 하여 잇는 모양이라는 사실로 그와 가치 활동을 하는듯 하다더라 (평양)

별표고무

商標 登錄

상표의 주의 근일 가짜 별표가 각처에 류행하오니 상표에 특별주의 하시옵

엡부고、튼튼한 별표고무신은 일년이상 은 넉넉히 신습니다 값적은 나즌 물건에 속지 만 마시고 당연코 한번만 시험해 보시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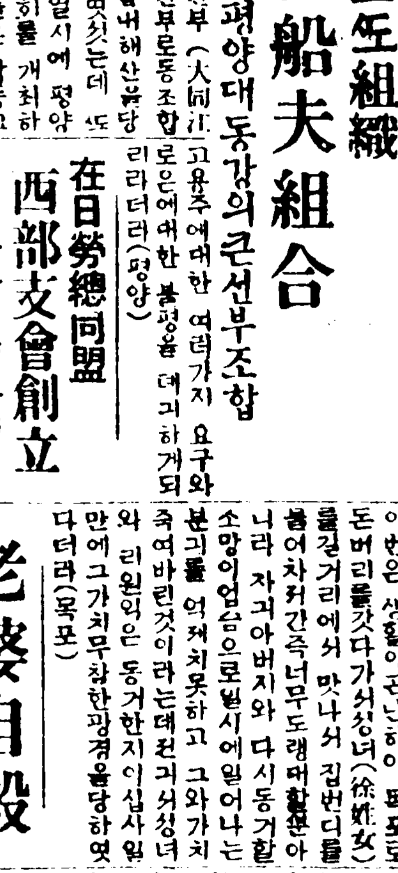
一、진짜별표는 별、사면으로 광선(光)이 쭉쭉 뻐쳣고
二、진짜별표는 별가온데 업문으로 (별) 자를 썻고
三、뒤축에 엄덩을 두 뗀것이 특색이외다

京城府竹添町一丁目六二
中央商工株式會社
社長 金性洙
專務取締役 金季洙
取締役支配人 金鎭懋
商業部 電話光化門局二一八七〇番
工業部 京城府本町二七六 電話本局二一八八番

【營業科目】
商業部	工業部
米·雜穀貿易	별표고무신
肥料一式	新苧(上)
フスマ及馬糧	京城木(灰、黑、白色)
倉庫業代理業	京印木(단목)
	製造發賣

品質本位

◎地方注文歡迎◎ ◎現時價格表進呈◎



和洋金物 印刷器具 捕獲器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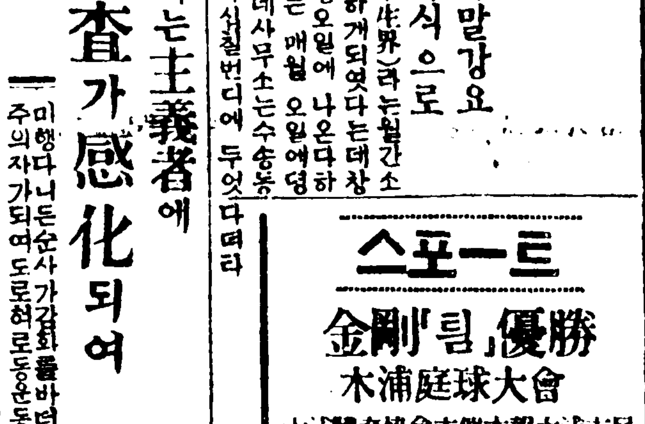
都散賣 京城鍾路二丁目 吉川金物支店 振替京城一〇九七〇番 電話光六八八番

外科 植村病院

院長醫學博士 植村俊二

電話本局 一七九二 三二七二

京城永樂町二丁目



米國製 高級無線電話器 部分品一式俱備

京城鍾路二丁目 ラヂオ部 (電話光三九六番)

株式會社 朝鮮銀行

本店 京城

總裁 鈴木嶋吉

支店出張所
內地 東京、大阪、大阪西區、神戶、
朝鮮 釜山、大邱、仁川、平壤、鎭南浦、元山、群山、木浦、淸津、會寧
滿洲 大連、旅順、營口、遼陽、奉天、奉天新市街、開原、長春、安東縣、龍井村、哈爾賓、傅家甸
支那 上海、靑島、天津
露領 浦潮斯德
米國 紐育
右外倫敦、巴里其他內外國要地에 爲替取引店이 有함

金石金買入

京城明治町 德力出張所

平北宣川郡川南洞 德力臨時出張所

ClibPDF - www.fastio.com

兩取合併

仁取와 갓치 京取도 延期?

今日重役大株主會

◇旣報함과 가치 兩取合併에 對하야 仁取重役會에서 어느 時期까지 合併을 中止하기로 함에 對하야 京取에서도 京取重役大株主委員의 聯合會를 今三日午前十一時에 同市場에서 열고 合併에 對하야 京取側에서는 엇더한 態度를 取할가 硏究하야 最後決定을 보게 될 모양인데 아마도 仁取에서 決定한 바와 가치 될 듯 하더라

양이며 東京米取의 見理事와는 六千株 員代의 內約成立을 傳하는 바 [illegible] 仁川市民의 勸信員代도 內情은 以上과 갓터 된 모양이더라

好機만 期待

合併은 强行

合併派重役은 仁川府民의 勸信員代 [illegible] 當分延期케 된바 此에 對하야 [illegible]

兩重役補缺은

來總會에서

仁取는 吉田, 河野 辭任重役의 補缺은 來總會까지 中止할 모양으로 [illegible] 仁川在住者에서 求할 豫定이라더라

土地改良職制

二日發表

土地改良會社에서는 事業地의 [illegible] 二日에 職制와 人事를 發表하더라

肩代는 極難

京取도 亦是 延期

仁取重役談

勸信員代其他合併問題에 對하야 仁川反對側 [illegible] 더라

고무消費

一年八百噸

本年初부터 原料高와 製品의 不況 [illegible]

大阪에 朝鮮苹果

總需要一割

大阪에 供給할 苹果는 總量 [illegible]

旣成鹽田

來年度完成計劃

朝鮮內 食鹽의 需給自足은 專賣局 [illegible]

勸信得利

一萬五千圓

仁取重役間에 分與한 勸信持株中 [illegible]

仁取重役辭任

秘密計劃暴露

仁取는 十一日 重役會에 突然히 吉田 河野 二重役이 辭任을 提出한 [illegible] 代를 交涉하야 如意케 되면 次期仁取社長이 되리라는 內意도 잇섯든 모양이라더라

原料

當業者의 販路開拓

[illegible]

運送合同은

小業者를 威脅

運送合同問題는 朝鮮의 自由營業地區가 되엿슴으로 日本業者 [illegible]

關係

[illegible]

京南의 殖銀借入金

京南鐵道는 該者 安城 長湖院間 工事所用資金 百萬圓 借入에 對하야 殖銀과 交涉中이든 바 最近 借入期間 四個月 利率 九分五厘로 交涉이 成立되야 不遠間 借用되리라더라

明年度葉煙草

耕作大擴張

專賣局 明年度의 葉煙草 大擴張計劃 [illegible]

据置貯金轉地

三日官報로 認定

郵便貯金通帳 [illegible] 三日官報로 發布될 터이라더라

十月限의 本領

前半은 波瀾

後半은 安定

十月限의 新市는 一般이 豫想하는 바와 가치 [illegible]

이新甫는

[illegible]

波瀾萬丈

의 激烈한 [illegible]

今日天候

南鮮地方은 陰曇

黃海沿岸은 險惡

◇槪況 [illegible]

(二日仁川觀測所發表)

期米 前場軟調

(二日 仁川)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稍强

[illegible]

取組高 (單位石)			
帳入價格			
賣買高			
本期總數			

各店倭合

[illegible]

二五十八의

天災勝負의 幕

今朝新甫가 大下[illegible]

米豆餘塵

◇…稍前[illegible]

仁川正米標準時勢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兵庫期米

[illegible]

下關期米

[illegible]

桑名期米

[illegible]

後場止跡氣配

[illegible]

各地穀物

釜山 [illegible]

大邱 [illegible]

群山 [illegible]

株式 前場伸惱

(二日 京取)

入超激減好感

▲京取二十錢低 ▲大新四十錢低 ▲鐘新一圓高

[illegible]

依然閑散持續

[illegible]

合併中止는

아즉無反響

京取는 兩取合併問題로 最初에는 [illegible]

上伸尙早?

依然時機待

[illegible]

前場諸株步調

[illegible]

後場强保

▲京取保價 ▲大新六十錢高

後場諸株步調

[illegible]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場	後場
京取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短期賣買成立高

合計 [illegible]

大阪長期取引

[illegible]

大阪短期取引

[illegible]

大阪三品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京城綿絲布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朝鮮銀行建値)

麻衣太子

春園 作

丹谷 畵

【八六】

사랑과 원수 (六)

[illegible]

社告

一、名稱 龜城支局

一、位置 龜城郡南市

一、區域 龜城郡一圓

一、職氏名 支局長 金廷湜

總務 裴燦京

記者兼會計員 盧鳳燮

右와 如히 支局을 變更하엿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압

東亞日報社 白

●몸이 비둔한 분, 강마른 분의

●男女四十歲以上된 이가 만타

糖尿病

을 바려두시면

肺結核, 心臟, 腎臟病, 老衰, 血管硬化, 惡性腫氣等을 發하야 死因이 됨니다

●服用하시면 糖尿가 減하야 治療됨니다

●神奇하게 有效한 高山植物 發見

全治者가 만어 집은 眞로 可驚할 일이외다

[illegible]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

河合洋行 京城支店

電話本局長 二五六七番

振替京城四六七番

代理店 京城府社稷洞二一七

竹內洋行藥品部

電話光化門一三一九番

振替京城七一九番

すくりん 山

京城府本町一丁目

合資會社 山岸天佑堂

營業分類

藥種·賣藥·工業藥·醫療器械·化粧品·卸·小賣

藥局 電話 二〇一四

卸部 電話 三七二二

卸部 (本局) 三六五五

分店 電話 二八九六

振替口座 京城二〇三五

每月營業月報發行

適最

各飲食店

小雜貨商

八谷式最新型製麵

本機一日의製麵高拾五俵以上

本機廣告에限하야發賣에限

特價金七拾圓也

製麵機械製作專門

大邱八重町 八谷工場

長途話 〇四七番

支店 元山驛前

平壤驛前